

中國專門家

李映周博士

‘세계의 중국통 5인’에 선정된 이영주



社團 中國政經文化研究院
法人



姓 名 : 이영주 (李映周)
雅 號 : 豪殷
E - mail : chinapec213@naver.com
Homepage : <http://www.chinapec.or.kr>

經 歷

1965 空軍 (滿期除隊)
1970 國土統一院 常任研究委員
1974 第 25 回 行政事務官 特別採用考試 合格
(文化公報部 海外公報館 海外課, 涉外課, 外信 擔當官 歷任)
1979 韓國國際文化協會 文化部長
1981 文化公報部 海外公報館 專門委員
1984 聖心外國語專門大學 講師
1985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非常任研究委員
1993 (株)靑丘 中國本部 本部長
1994 駐中國 大韓民國建設企業 協議會 會長
1994 中國 北京市 通州區 人民政府 高級顧問
(株)SSANGBANGWOOL 中國本部 總代表
1996 忠清北道 名譽大使
1998 中國 吉林大學 客座教授
1998 卅千年國民會議 國際協力委員會 副委員長
1999 中國 北京 廣播大學 客座教授
2000 卅千年國民會議 國際協力特別委員會 副委員長
2001 京畿道 名譽大使
2002 大宇經濟研究所 會長
2003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民族和合分科委員長
(運營委員(大統領 任命))
2005 (社)韓國青少年聯合 總裁
2006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韓中 平和FORUM 代表
2007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運營委員(大統領 任命)
2007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國際委員長(大統領 任命)
2007 忠清北道 名譽大使
2009 國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 政策諮問委員
2009 靑瓦臺 外交安保首席室 政策諮問委員
2010 韓•中 FORUM 推進委員會 代表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委員)
2010 卅萬金 經濟自由區域廳 諮問委員
2010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常任委員(大統領 任命)

學 歷

1960 清州高等學校 卒業
1962 成均館大學校 中國文學科3年 中退
1970 臺灣 國立政治大學 外交學科 卒業 (法學士)
1971 美國 캘리포니아 州立大學(U.C.L.A)
亞細亞問題研究所修學
1985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卒業 (行政學碩士)
1993 中國 北京大學 國際政治學科 學者研修課程 修了
1996 中國 北京大學 國際政治學科 博士課程 卒業
(法學 博士學位 取得)
論文 (中國的新外交戰略与韓中關係)-中文

經 歷

1999.09 ~ 現在 : 中國 北京大學 客座教授
2003.01 ~ 現在 : 在韓 中國留學生 聯合會 特別顧問
2003.06 ~ 現在 : (社) 中國政經文化研究院 理事長
2005.04 ~ 現在 : 韓國中國留學博士協會 會長
2005.04 ~ 現在 : (社) 韓中友好協會 副會長
2009.09 ~ 現在 : 北京大學 國際戰略研究中心 客座研究員
2009.10 ~ 現在 : 北京大學 同門會 理事
2009.11 ~ 現在 : 中國 湖北省 荊州市 高級 經濟 顧問
2009.12 ~ 現在 : 中國 山東省 威海市 經濟顧問
2010.04 ~ 現在 : 中國 延邊大學校 名譽教授
2010.07 ~ 現在 : 中國 山東大學 威海 分校 客座教授
2011.01 ~ 現在 : 外交通商部 政策諮問委員

著 書

<韓中關係與亞太局勢> - 中國語 版 (1993年 出版)
<中國的新外交戰略和韓中關係> - 中國語 版 (1997年 出版)
<中國의 新外交戰略과 韓中關係> - 한글 版 (1998년 出版)
<중국학자들 세계를 보다> - 번역 版 (2013年 出版豫定)

보도자료

- 한중 우호를 위해 벽돌을 쌓고 기와를 올린다..... 人民日報 (1996.06.01) | 1
- 이름없는 호반의 중국에 대한 연정..... 光明日報 (1996.06.12) | 2
- 북경대서 첫 한국인 박사 "탄생"..... 한국일보 (1996.06.06) | 3
- 중국을 나의 조국만큼 사랑합니다..... 北京日報 (1996.06.13) | 4
- 한중 우호의<민간사절> 이영주 中國經濟日報 (1996.06.27) | 5
- 한 학자의 역동적인 삶 China Daily (1996.07.16) | 6
- 세계 5인의 中國通 (나와 중국의 꿈을 수 없는 인연)..... 中國經濟日報 (1999.09.25) | 7
- 외국인 인사가 본 중국 (기고)..... 人民日報 (2000.01.12) | 8
- 중국 올림픽 경축 한중 콘서트 축하의 말: 13억 인구에게 유치기원 메시지 전달 CCTV -생방송 방영 (2001.04.23) | 9
- 한·중 경제 협력의<사절> 人民日報-海外版 (2001.05.25) | 10
- 중국통 어느 분야에 누가 있나 주간한국 (2001.08.02) | 11
- 한국인 최초 중국 박사 ‘중국의 불가사의한 발전’에 감탄..... 環球時報 (2001.08.17) | 12
- 중국 발전정세하의 한국의 경쟁력해..... 中國MBA (2004.05 月號) | 13
- 李映周, 시대의 풍조를 뛰어넘은 중국으로의 투자..... 亞洲資本 (2004.05 月號) | 14
- Sinologue’s view about China..... 當代經理人(2004.06 月號) | 15
- “중국전문가 정부차원 양성 시급”..... 머니투데이(2004.08.02) | 16
- 李映周學中文 為了600年前先祖的囑托 中國經濟日報 (2004.11.09) | 17
- “중국, 알고 가야 실패 안 합니다.” 중앙일보 (2005.04.05) | 18
- “이영주 대우경제연구소회장 중국유학박사협 회장선임 조선일보 (2005.04.08) | 18
- 기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 모색해야”..... CHINA21 (2005. 5月號) | 19
- 중국통,중국유학박사 600명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창립..... 월간My self (2005. 5月號) | 20
- 중국 푸는 열쇠는 ‘원칙과 융통성’의 황금비율..... CHINA21 (2005. 6月號) | 21
- “中과 진정한 친구가 될 때 기회의 땅”..... 머니투데이 (2005. 10.24) | 22
- 중국박사+중국외교가 이영주 空中生活 (2006.07 月號) | 23
- 600년 전 조상의 당부를 잊지 않고 실행에 옮기다..... 人才財富 (2006.07. 月號) | 24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 양국의 역할..... CHINA21 (2006.08. 月號) | 25
- 국제전문가와 함께 중국의 “조화로운 세계”이념을 논의하다 參考消息 (2006.12.28) | 26
- 이영주 : 중국의 저임금시대는 지났다. 環球財經 (2008.03.31) | 27
- 이영주 : 한국의 “중국통” 인민망 (2010.09.18) | 28
- 한중평화포럼(한·중양국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人民日報 韓國판 (2010.10.11) | 29
- 이영주:중한경제합작 “민간대사”..... 中國企業報 (2010.06.03) | 30
- 중국 언론이 선정한 세계 5인의 중국통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영주..... CHINA MAGAZINE (2012.11,12月號) | 31
- “독점” 한국전문가분석 박근혜 새정부 국정방향..... 인민망 (2012.12.20) | 35
- ‘난팅포럼’ 새로운 정세 하에 중국외교..... 인민일보 (2013.01.04) | 36

사진자료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예방(2003.06.20) (人民大會堂) | 3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예방.....(2005.11.16) (신라호텔 영빈관) | 37
- 장쩌민(江澤民)전 중국 국가주석 예방(2001.05.28) (中南海) | 37
- 원자바우(溫家寶) 중국 총리 예방.....(2007.04.10) (신라호텔 영빈관) | 37

한·중 우호를 위해 벽돌을 쌓고 기와를 올린다
(인민일보 1996.06.01)

"1996년 5월 30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영주 박사는 흥분된 어조로 기자에게 말했다. 이날 그는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에서 손조롭게 박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중국 최고학부의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반백이 넘었지만 이영주 박사는 정력이 왕성하고 박식한 분이였다. 그는 여태껏 한중우호 협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중국문화와 중국에 깊은 감정을 지니고 있어 중국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영주 박사는 말했다. 그의 선조 목은 이색 선생은 일찍 명 나라 초기 중국에 와서 명조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그 후부터 중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이씨' 가문의 전통이 되었고 이영주 박사까지 이미 19대째 내려오고 있다. 가정의 영향과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영주 박사의 중국어실력은 그가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유창하고 정통적이다. 1962년 이영주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수료하고 다년간 중국정치와 외교연구에 종사하였다. 90년대 초반, 북경대학 고급과정에서 1년간 연수하는 동안 그는 [한중관계와 아시아정세]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전문학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결국 1993년 5월, 그는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여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의 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3년 동안 그는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 하였다.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중국사람과 만나며 넓고 심오한 중국문화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중국과 신 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에서 중국외교를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의 신 외교전략은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지를 갖게 되었고 또 수준 높은 외교술은 커다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강대국의 지위와 대국적인 품도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 외교전략은 특별히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주변국가와의 우호를 견지하여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관계 건립 및 공존발전을 위해 노력 함으로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논문 중에서 서방 언론매체가 퍼뜨린 "중국 위협론"에 대하여 논리적 증거로 반론을 제시하였다.

한중경제 무역협력을 추진하는 면에서도 이영주 박사는 많은 일을 하였다. 1991년 포항제철이 북경에 사무처를 설립하여 이영주 박사가 이사직을 맡으면서 대 중국 수출량을 당시의 15만 톤에서 1993년에 190만 톤으로 급증시켰다. 재임기간 그의 <포항제철과 중국>과 <중국철강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는 한국 철강 회사들의 대 중국철강 무역협회 지침서가 되었다. 그 후 그는 한국청구건설주식회사 駐북경 수석대표와 駐中 한국건설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재임시 그는 또 <중국건축 관련법령집>을 번역 및 출간하여 한국 건설회사들이 중국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두 나라사이의 건축영역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그는 (주)쌍방울의 부사장 및 중국 '쌍령법인유한공사' 의 회장이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내의 전문 생산업체로써 이미 길림과 상해에 인민폐 5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웠고 천진에도 가공공장을 세웠다. 이 기업의 최신설비는 전부 한국에서 수입하였다. 이영주 박사는 중국시장의 거대한 잠재력, 값싼 노동력 등 조건이 우월하여 더 많은 한국회사가 중국에 큰 투자를 할 거라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 이영주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계속해서 한중 두 나라 국민사이의 이해와 우의 촉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한중우호 협력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人 民 日 報
1996年6月1日 星期六 第三版

“1996年5月30日，是我终身难忘的一个日子。”李映周先生兴奋地对记者说。这天，他在北京大学国际政治系顺利通过论文答辩，成为第一个拿到中国最高学府博士学位的韩国人。

李映周已年过半百，但精力旺盛，学识渊博。他一直在为中韩友好合作学习和工作着。

“我从小就对汉学和中国有着深厚的感情，而且深深地爱上了这个国家。”李映周说。早在明朝初年，他的先祖穆隐李穰先生就来过中国，并参加了当时明廷的科举考试。从那以后，学习汉学就成了他们李氏家族的传统。到李映周这一辈，已经是第19代了。由于家庭的熏陶和他本人的潜心努力，汉语终于成了他运用自如的语言，以至在交谈中竟辨不出他是一位韩国人。

1962年，李映周毕业于韩国成均馆大学中国文学科，而后又多年从事中国政治与外交的研究。90年代初，他在北京大学高级学者研修班进修一年，发表了题为《中韩关系与亚太局势》的论文，受到专家学者们的广泛好评。

他的愿望终于实现了。1993年5月，经过考试，李映周被北京大学国际政治系录取为博士生。3年来，他边学习边工作，“接触的是热情友好的中国人，感受到的是博大精深的中国文化。”他的论文《中国的新外交战略和韩中关系》高度评价中国外交，指出“中国的新外交战略实事求是，具有崭新的境界，高超的外交艺术，取得了巨大成效，体现了中国在国际社会的大国地位和大气风度。中国的新外交战略突出维护世界和平，服务国内建设，坚

持睦邻友好，始终坚持在和平共处五项原则的基础上同世界所有国家建立和发展友好合作关系，受到了国际社会的广泛称赞。”他在论文中还有理有据地批驳了西方媒体散布的所谓“中国威胁论”。

在促进韩中经贸合作方面，李映周先生也做了许多有益的工作。1991年韩国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在北京开设了办事处，李映周出任总代表。该企业向中国的钢铁出口量由当年的15万吨猛增到1993年的190万吨。任职期间，他撰写了《浦项制铁与中国》和《对中国钢铁市场的分析与展望》的研究报告，并成了韩国钢铁公司同中国寻求贸易合作的指南。此后，他转而出任韩国青丘建筑株式会社北京首席代表和韩国驻中国建筑协会会首任和第二任会长。在任时，他还主持翻译出版了《中国建筑关联法令集》，以便让韩国建筑公司了解中国的有关法规，开拓市场，加强两国在建筑领域的合作。

如今，他是韩国双铃针纺会社副社长，并兼任中国双铃法人有限公司董事长。该会社是韩国最大的专门生产内衣的针纺公司。它已在吉林和上海投资5亿人民币办厂，还在天津开办来料加工厂。这些企业的先进设备全都从韩国引进。李映周说，中国市场潜力巨大，劳动力便宜，条件优惠，将会有更多的韩国公司来华投资。

采访结束时，李映周先生表示：“我将继续全力以赴地促进韩中两国人民之间的了解和友谊，为韩中友好合作加砖添瓦，多做贡献。”

本报记者 张亮

「为韩中友好加砖添瓦」

通讯

이름없는 호반의 중국에 대한 연정

(光明日报 1996.06.12)

1996년 5월 30일은 이영주선생의 일생 중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 날 그는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논문 심사가 통과되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대학의 박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이영주선생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3년 반의 노력을 통하여 끝내 이러한 영광을 얻었는바 내 일생의 소망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저승에 계시는 모친에게도 위로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선생에게 있어서 자신이 목은 이색의 19대손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찍이 명나라 초기에 그의 선조 목은 이색선생은 중국에 와서 당시의 과거시험에 참가하였다. 그 후부터 한학공부는 한산 ‘이씨’ 가족의 전통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이영주선생은 한학의 영향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가 중국문학을 전공하였다. 그 후 그는 또 다년간 중국의 정치와 외교연구에 종사하였다. 온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 끝에 그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국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가 외국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다. 이영주선생은 중국과의 인연을 갖기 이전에도 대만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다.

光明日报 1996年6月12日 星期三 第三版

1996年5月30日是李映周先生终生难忘的日子。这一天，他在北京大学国际政治系顺利通过了论文答辩，成为韩国有史以来的第一个中国博士。第二天，年过半百的李映周先生动情地对记者说：“经过3年半的努力最终获得这一殊荣，既实现了我一生中的最大愿望，也可以告慰在九泉之下的母亲了。”

无名湖畔中国情

访首位在华获得博士学位的韩国人李映周

本报记者 李增伟

对李映周来说，身为穆稷李穰第19代孙是最让他骄傲的荣耀。早在明朝初年，他的先祖穆稷李穰先生就来到中国，并参加了当时的科举考试。从那以后，学习汉学就成了这个韩山李氏家族的传统。很小的时候，李映周就受到汉学方面的熏陶。中学毕业后，他进入韩国成均馆大学学习中国文学，之后又多年从事中国政治与外交的研究。经过不断的潜心努力，汉语终于成了他运用自如的语言，在同中国人交谈时，很难分辨出他是一个外国人。

李映周先生曾先后赴台湾和美国求学，1992年来到中国，开始在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供职。出于对汉学的热爱和对中国的深厚感情，他决定要到北京大学继续深造。在一般人看来，以他这样的年纪和韩国大公司驻北京办事处总代表的身份，再去学校学习实在没有必要。而他的母亲则坚决支持他继续学习并希望他能克服困难实现自己的愿望。通过在北大高级学者研修班一年的学习准备，他终于在1993年5月考入北大国际政治

系的博士生班。在此期间，他的母亲不幸病逝。母亲没能亲眼看到他读完博士学位，这是李映周心中最大的遗憾。

3年多以来，李映周一面为促进中韩经贸合作辛勤工作，一面刻苦地学习。在他任韩国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北京办事处的总代表时，这家企业对中国的钢铁出口量由开始时的15万吨猛增到150万吨。这期间，他撰写的《浦项制铁与中国》和《对中国钢铁市场的分析与展望》的研究报告成了韩国钢铁公司向中国寻求贸易合作的重要参考文件。后来，他出任韩国青丘建筑株式会社驻北京首席代表和韩国驻中国建筑协议会首任和第二任会长，主持翻译出版了《中国建筑关联法令集》。这本书为韩国建筑公司了解中国有关法规、开拓在中国的市场和加强两国在建筑领域的合作提供了很大的帮助。

北京大学国际政治系主任、李映周的导师梁守德教授告诉记者，虽然李映周带薪学习，可他对待学习的态度却十分严谨认真。通过进一步的学习，李映周先生“被中国人的热情友好而深深感染，被博大精深的中国文化而深深吸引”。他在论文《中国

的新外交战略和韩中关系》中高度评价中国外交，指出“中国的新外交战略实事求是，体现了中国在国际社会中的大国地位和大国风范。中国的新外交战略突出维护世界和平，服务国内建设，坚持睦邻友好，始终坚持在和平共处五项原则的基础上同世界上所有国家建立和发展友好合作关系，受到了国际社会的广泛称赞。”他在论文中还有理有据地批驳了西方媒体散布的所谓“中国威胁论”。他对韩中关系及亚太局势的深入分析见解颇深，得到了答辩委员会中7名成员的一致好评。

现在，李映周是韩国最大的专门生产内衣的针织公司——双铃针织社副社长，并兼任中国双铃社有限公司董事长。这家公司已在吉林和上海投资5亿元人民币办厂，还在天津开办了来料加工厂。这些企业的先进设备全都从韩国引进。他说，中国社会稳定，市场潜力巨大，投资环境良好，肯定会有越来越多的韩国和其他国家的企业家来这里投资。

作为韩国忠清北道驻中国的名誉大使和北京市通县人民政府的高级顾问，李映周现在每天都有忙不完的事。李映周先生又告诉我：他的小妹李在禧和姐夫崔世晔都是韩国国立忠北大学的教授，同他一样都是“中国迷”，现在他感到更加骄傲，因为他已变成了“中国通”。他还说，他们全家都有一个共同的心愿，就是希望韩中两国人民世代友好下去。从这些话语里，看得出他对中国的一片深情。

그 후 1992년 포항제철 북경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한학에 대한 애착과 중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북경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이에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모친은 그가 계속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지지하여 주었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기를 희망하였다. 북경대학교 고급학자 연수반에서 일년동안 연수과정을 거쳐 그는 1993년 9월에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이 사이 그의 모친은 안타깝게도 별세하셨다. 이영주선생의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은 모친이 직접 그가 박사학위 공부를 마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학업의 3년동안 이영주선생은 한중경제무역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였고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가 한국 포항제철 베이징 수석대표로 재직 중일 때 이 회사의 대중국 철강 수출량은 최초 15만톤에서 150만톤으로 늘어났다. 이 동안 그는 “포항제철과 중국”, “중국 철강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철강회사가 중국과의 무역 협력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 후 그는 한국청구건설주식회사 주 베이징 수석대표와 주중 건설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중국건설관련법령집]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은 한국건설회사가 중국의 관련 법규를 이해하며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양국의 건설 영역의 협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 학과장이자 이영주선생의 지도교수인 랑소우더(楊守德)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록 이영주는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지만 공부에 대한 태도는 엄격하고 진지하였다. 공부하면서 이영주선생은 중국인의 친절과 우호에 감동하였고 방대하고 세심한 중국문화에 매료되었다.” 그의 논문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외교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의 신외교전략은 ‘실사구시’ 적이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국의 지위와 대국의 패기를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신외교전략은 세계의 평화유지를 도출하고 국내 건설을 목표로 이웃나라와 우호적으로 지내며 평화공존 다섯 항의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우호협력관계를 이루고 발전 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찬사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였으며 그는 논문에서 서방매스컴이 퍼트린 ‘중국위협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반박을 하였다. 그는 한중관계와 아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심사위원7명 모두에게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았다.

현재 이영주선생은 한국 최대의 내의전문회사(주)쌍방울의 부사장 겸 중국 ‘쌍류유한공사’의 회장이다. 이 회사는 이미 길림과 상해에 인민페 5억위엔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웠고 천진에 원단가공공장을 세웠다. 이 기업들의 최신 설비는 모두 한국에서 수입하였다. 그는 중국의 사회가 안정적이고 시장 잠재력이 무한하며 투자환경이 양호하여 더 많은 한국과 기타 국가의 기업가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충청북도 주중명예대사와 북경시 통주구 인민정부의 고급 고문으로 이영주선생은 요즘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영주선생이 기자에게 말하기를 그의 여동생 이재희박사와 매부 최세만박사는 모두 국립충북대학교의 교수로서 그와 같은 ‘중국애호가’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그의 모든 가족이 바라는 것처럼 한중 양국 국민이 대대로 우호관계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그의 중국에 대한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북경대 첫 한국인 박사 “탄생”

(한국일보 1996.06.06)

- 7월 학위 쌍방을 부사장 이영주 씨

‘92년 한·중 수교 이후 北京大에서 첫번째 한국인 박사가 배출됐다. 北京大 국제정치학과에서 『중국의 新외교전략과 한·중관계』라는 논문으로 7월 학위를 받는 이영주씨(54. 쌍방울 현지법인 부사장)가 주인공. 이씨의 논문은 3월 北京大 자체 박사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1일 량소우더(楊守德) 논문지도 교수 등 이 분야 10여명 권위자의 집단 인터뷰에서도

만장일치로 받아 들여져 학위수여식만 남겨놓고 있다. 체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논문을 썼다는 평판을 받은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중외교사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탈냉전후의 중국 신외교전략의 성격을 개괄했고 제2장은 이 시기 중국 신외교전략의 배경과 근거가 된 국제환경 중국 국내 개혁 개방의 연관성 외교전략의 총 설계사 鄧小平(덩샤오핑)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다. 3,4 장에서는 중국 신외교전략의 내용과 원칙을 서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특색 속에 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외교전략을 一分爲二(하나를 두 갈래로 나눔)라는 틀로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원 했던 한·중 관계가 냉전 종식 후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적응 변모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씨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중국 신외교정책 韓中관계 심도있게 분석
“양국간 차이점존중 상호 보완관계 이뤄야”

승화시킨다면 양국은 아·태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씨는 [이 논문을 현재의 중국외교전략을 한국측 입장에서 분석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완화의 통일에 일조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만 국립정치대학을 졸업한 뒤 건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통일원, 문공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89년 포철 대외협력부장으로 한·중 수교 전부터 중국을 내왕하다 ‘92년 8월 북경 고급학자 연수반 1년을 수료한 후 수교 3일후 박사과정에 입학, 3년만에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언론들도 한국인으로서 북경대 박사가 배출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북경대서 첫 한국인 박사 “탄생”

7월학위 쌍방울부사장 이영주 씨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北京大에서 첫번째 한국인 박사가 배출됐다. 北京大 국제정치학과에서 『중국의 新외교전략과 한·중관계』라는 논문으로 7월 학위를 받는 이영주씨(54. 쌍방울 현지법인 부사장)가 주인공. 이씨의 논문은 3월 北京大 자체 박사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1일 량소우더(楊守德) 논문지도 교수 등 이 분야 10여명 권위자의 집단 인터뷰에서도 만장일치로 받아 들여져 학위수여식만 남겨놓고 있다. 체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논문을 썼다는 평판을 받은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중외교사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탈냉전후의 중국 신외교전략의 성격을 개괄했고 제2장은 이 시기 중국 신외교전략의 배경과 근거가 된 국제환경 중국 국내 개혁 개방의 연관성 외교전략의 총 설계사 鄧小平(덩샤오핑)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다. 3,4 장에서는 중국 신외교전략의 내용과 원칙을 서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특색 속에 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외교전략을 一分爲二(하나를 두 갈래로 나눔)라는 틀로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원 했던 한·중 관계가 냉전 종식 후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적응 변모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씨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중국 신외교정책·韓中관계 심도있게 분석 “양국간 차이점존중 상호 보완관계 이뤄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北京大에서 첫번째 한국인 박사가 배출됐다. 北京大 국제정치학과에서 『중국의 新외교전략과 한·중관계』라는 논문으로 7월 학위를 받는 이영주씨(54. 쌍방울 현지법인 부사장)가 주인공. 이씨의 논문은 3월 北京大 자체 박사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1일 량소우더(楊守德) 논문지도 교수 등 이 분야 10여명 권위자의 집단 인터뷰에서도 만장일치로 받아 들여져 학위수여식만 남겨놓고 있다. 체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논문을 썼다는 평판을 받은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중외교사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탈냉전후의 중국 신외교전략의 성격을 개괄했고 제2장은 이 시기 중국 신외교전략의 배경과 근거가 된 국제환경 중국 국내 개혁 개방의 연관성 외교전략의 총 설계사 鄧小平(덩샤오핑)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다. 3,4 장에서는 중국 신외교전략의 내용과 원칙을 서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특색 속에 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외교전략을 一分爲二(하나를 두 갈래로 나눔)라는 틀로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원 했던 한·중 관계가 냉전 종식 후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적응 변모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씨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중국을 나의 조국만큼 사랑합니다 (北京日报 1996.6.13)

- 북경대학에 제1호 박사 이영주 -

만약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이영주박사 말을 들으면 방언이 섞인 외지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영주박사는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오래 머물러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그는 전혀 외국인 같지 않다. 여기까지 말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젊은 학자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50이 넘는 나이에 한국의 큰 회사 베이징 대표로서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한학과 중국에 관심이 많아 북경대학에서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고자 결심했다 한다. '93년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북경대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되었다. 3년 동안 고된 학업과 일을 하며 항상 새벽 4시면 일어나 책을 읽었는데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었다. 그는 "내가 접한 것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중국인이고, 느낀 것은 방대한 중국문화이다."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의 외교전략사상에 매료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랑소우더 (楊守德)교수의 지도하에 중국의 국제정치학이론과 외교 전략 과목을 연구하였다. 논문심사 위원회에서는 그의 논문은 구조가 완벽하고 내용 이 충실하며 독자적인 견해가 돋보여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최고학부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1호 한국인이 되었다. 박수소리를 들으며 오백년 전의 조상과 부모의 '중국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생각났다. 처음에서도 이 일을 아신다면 기뻐하실 것이다.

1996年6月13日 星期四 第一版 北京日报

要是没人事先告诉您,听李映周一席话,您准以为他是位带点儿乡音的外地人。错啦!

李映周出身韩国书香门第。上溯十九代,家中出了一位名士,人称穆隐李福,曾在明朝初年来北京参加过科举考试。从那以后,学习汉学就成了韩山李家的传统。李映周还在嗶呀学语时就受到父亲汉文化的熏陶,在大学读的又是中国文学,加上近几年常驻中国,难怪一口流利的中国话真让人听不出他是外国人。

说到这里,您脑子里可能有了一个形象:一位青年书生。又错啦!用李映周自己的话说:"在一般人看来,以我这样已过半百的年纪和韩国一家大公司驻北京办事处总代表的身份再去学校学习,实在有些不可理解。但我从小就对汉学和中国有深厚的感情,所以我下定决心要在北京大学拿到一个授予韩国人的博士学位。"

1993年,李映周通过考试成为北京学国际政治系的博士生。

"寒窗"三载,半工半读,李映周常常是凌晨四时就爬起来读书。苦是苦,可是值。"我接触的是热情友好的中国人,感受到的是博大精深中国文化。"而最吸引李映周的是中国外交战略的思想和高超艺术。

在导师梁守德教授指导下,李映周系统学习了中国的国际政治学理论和外交战略的课程。他非常敬佩邓小平惊人的洞察力。在他的博士论文中,他尝试运用唯物辩证法去分析研究中国新外交战略的基本特色,得出自己的见解:中国新外交战略既是发展中国家的战略,又是走向多极化格局中"一极"国家的战略;既是防御性"韬光养晦"的战略,又是有所作为的战略;既是原则性强的战略,又是灵活性大的战

「我爱中国仅次于爱我的祖国」

——记北京大学第一位韩国博士李映周

对此,答辩委员会认为,论文结构完整,内容充实,有独到见解,一致通过。于是李映周成了第一位获得中国最高学府博士学位的韩国人。

掌声中学映周想起了五百年前的那位先人,想起了教他热爱中国的父母亲;如果他们九泉下有知,定会欣然含笑。掌声中学映周看见了妻子眼角的泪花,三年的苦读离不开妻子的理解与支持,“博士是我拿到的,但二分之一应当归她。”掌声中学映周想到了儿子,这三年,儿子恰好在大洋彼岸釜山大学,父子俩常常在越洋电话上相互勉励。掌声中学映周想到了中韩两国源远流长的友好关系,“我已经五十四岁了,没有更大的目标,但是对于促进两国友好的事,我会全力以赴!我爱中国仅次于爱我的祖国!”

是的,获得博士学位后的李映周会更忙:作为韩国最大的纺织企业双铃针纺会社副社长,他要管好公司在

中外交流

博士论文



图中右二为李映周,右三为其导师。

한중우호의 <민간사절> 이영주 (中国经济日报 1996.6.27)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였다. 올해 5월은 이영주선생에게서는 수확의 계절이라 하겠다. 5월초 그의 노력 끝에 한국의 독자기업인 (주)쌍령복장유한공사가 길림과 상해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최대 내의전문회사 (주)쌍방울 부사장 및 중국 (주)쌍령복장유한공사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비록 기업에 몸 담고 있지만 학업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영주선생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확이 있다. 첫 번째로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학자로 기록된 것이다. 그는 근무시간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여 북경대 고급연수반을 수료 후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3년 동안의 고된 학업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5월 30일, 50세가 넘는 이영주선생은 마침내 뜻을 이루었다. 학자라고 해야 할지 외교가 또는 기업가라고 해야 할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그는 “국제형세가 이미 냉전정국에서 경제 전쟁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이 때에 각 나라는 다원화의 외교전략으로 정부주도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또는 개인적으로도 외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외교관만이 외교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도 마찬가지로 외교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새 외교전략을 연구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더욱 관심이 가득 하라며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을 위하여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실제로 두 나라의 국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89년부터 이영주선생은 이미 민간사절의 중국본부 설립 책임자 및 대중국 업무 추진자로서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그 후 청구건설주식회사 駐베이징 수석대표와 주중 한국건설협회 회장직을 역임하였고 ‘베이징 통주구’ 인민정부의 고급 고문직과 충칭북도 주중 명예대사로 위촉되었다. 박식한 이영주선생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의 유창한 중국어 구사에 그가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도 마치 직접 겪어 본 듯 감개무량해 한다. 이것은 아마 그가 중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선생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선조 목은 이색선생(목은 : 고려가 봉한 호)이 명나라 때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귀국한 후 일대의 명사가 되었다. 그 후 한학은 가문의 전통이 되어 이영주선생까지 제19대째 내려오고 있다. ‘50세가 되어야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였다. ‘한·중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열정을 바쳐 평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영주선생은 말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였다.

經濟日報
第四版



有志者,事竟成。今年5月,是韩国友人李映周先生的收获时节。

5月初,由他主持的韩方独资项目,吉林和上海两家双铃服饰有限公司终于动工兴建。它是韩国最大的针织集团裴邦尔针织株式会社举资6200万美元(约8亿元人民币)在海外建设的最大投资企业。李映周现在身兼韩国裴邦尔株式会社副社长和中国双铃服饰有限公司董事长。

不过,身在商界却心有所系的李映周先生还有另一个重要的收获:他是第一个拿到中国博士学位的韩国学子。为了这个学位,他将在中国工作以外的大部分时间用来学习,从北京大学高级学者研修班毕业以后,又考取了北大国际政治系的博士研究生。三年苦读,一朝成就。5月30日,年过半百的李先生终于如愿以偿。真可谓天道酬勤!

对这位很难定义为学者、外交家还是企业家的韩国人士,李先生自认为,既然国际形势已经从冷战转向“经济热战”,各国也因此采取多元化的外交战略,那么外交活动不再仅仅是政府行为,社会团体甚至个人也要参与其中。所以,不光外交官可以是外交家,企业家也同样可以成为外交家。他说,研究中国的新外交战略,更让他对中国的未来充满了信心。他非常愿意为到中国投资的韩国企业铺路架桥。

其实,早在两国尚未建交的1988年,李先生就已经在当这一“民间使者”了。当时他是韩国的钢铁巨人——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筹建中国总部的负责人并主持对华业务。就职期间,他为开拓浦项制铁与中国钢铁行业的贸易与合作做出了很大的贡献。其后,他又出任韩国普瓦建筑株式会社驻京首席代表兼韩国驻中国建筑协会副会长。他还是受聘于北京通州区人民政府的高级顾问和韩国忠清北道第驻华名誉大使。

而这位博才多识的李先生交谈,还会常常使人忘记他不是韩国人。不仅是他谈吐流畅,还因为每每说到中国的发展变化,他也会感慨万千,有如亲身经历过。这恐怕源于他对中国的特殊渊源。据李先生讲,他的外祖母随李母贞生(穆哈为马丽国的封号)曾来到中国,并在当时的朝廷科考中及第,回国后成为一代名士。此后,李氏家族成了李氏家族,这样的薪火相传至李映周先生,已是第19代了。

中国人讲,“五十而知天命。”李先生对自己的“使命”深信不疑,“为促进韩中两国间的友好合作,我愿倾注全部心血,作出毕生的努力。”

韩中友好的『民间使者』——李映周

本报记者 赵 炫

本版编辑 吕 强 宋 群

한 학자의 역동적인 삶 (China Daily 1996.7.16)

만약에 북경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세계기록을 담은 기네스북을 만든다면, 이영주선생은 무조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 목요일, 이영주선생은 대한민국 최초로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그는 아마도 이 대학의 가장 나이가 많은 졸업자일 것이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일입니다. 저는 북경대와 중국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인 학자는 북경대에서의 성대한 졸업식이 끝난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성공은 북경대 은사님들의 지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영주선생에게는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뤄진 것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있었던 1년간의 고급 연구과정에서 한-중 선린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 한중 관계와 ‘아-태(아시아 태평양) 상황’이라는 논문을 마친 후, 1993년 5월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허가 받았다. 그는 학과장인 랑소우더(楊守德) 교수의 지도하에 국제정치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다.

3년 후, 이영주선생은 북경대학과 그의 은사님들께 그의 학문적 성취를 발표하였다. 5월 30일, 그는 냉전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 관점을 다룬 ‘중국의 신 외교 전략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의 논문 심사를 받았다. 그의 논문에서, 이씨는 중국의 현 외교정책시대는 세계사회의 패턴이 다극화 방향으로 진행된 냉전의 종식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정의했다. 그 내용에서, 이영주선생은 중국의 전 총리 주은래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친선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초로 제시한 ‘평화공존의 5원칙’에 기반을 둔 다차원 전략을 중국이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독립, 평화, 원칙 그리고 유연성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세계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치와 처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오히려 국제환경의 호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위 ‘중국 위험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씨는 한-중 관계의 수립과 개발의 역사적인 필요성과, 그 관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기여하는 바를 다뤘다. 7명의 심사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공명정대하다”라며 이씨의 논문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어떤 것도 간단하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씨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양교수는 이씨의 노력을 더 높이 샀다. 외국인 학생인데도, 그는 중국의 외교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신 외교 전략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깊이 있고 종합적이었습니다.” 양교수가 말했다. “나는 이런 친구와 함께 중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씨가 쉬운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이영주선생이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할 당시,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내의류 업체 중 하나인 쌍방을 주식회사의 부회장을 겸임했으며 현재는 북경지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는 정말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활력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제 기업에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과정에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읽느라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졸업모와 가운을 입은 그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찾아와준 친척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박사학위 자격증을 손에 쥐고 말했다. 이영주선생은 북경대학 출판부가 올해 말에 그의 논문을 책으로 출판할 것이라 밝혔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대해 북경대학 최초의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의 성공이 자신으로 하여금 애초에 논문을 쓰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는 그의 가문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명나라(1368-1644) 초, 그의 조상인 목은 이씨가 중국으로 와서 과거 급제를 한 다음 고려로 돌아가서 저명한 학자가 되었고 나중에 문하시중이 되었다. 그 이후, 한학 연구는 그의 가문의 전통이 되었다. 이영주씨는 그 가문의 19대손이다. 그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으며 이후 대만과 미국으로 건너가 외교학과 국제 관계학을 연구하였다. 이영주선생이 중국에 처음 온 것은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3년 전인 1989년이었다. 기업가의 일원으로서였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눈은 눈물로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회고했다. “제 가문의 전통 때문에, 저는 제 모국 다음으로 중국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씨는 유창한 중국어로 사자성어를 쓰면서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영주선생은 ‘역경(변화를 다루는 책)과 ‘등소평 선집’을 애독했다고 말했다. 특히 ‘등소평 선집’은 그가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하기도 했다.

“나의 바램은 중국의 서예를 익히고 중국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씨는 그가 진승 골동품 시장에서 산 푸른 꽃무늬가 있는 도자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식 있는 학자이며, 전도유망한 기업가이자 친선대사인 이씨를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의 학문적인 업적 이외에도, 그는 한-중 양국무역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왔다. 그는 중국의 신 외교 전략에 대해 연구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쌍방을 주식회사의 투자로 상하이와 길림성의 5900만 달러 규모의 섬유 공장건설이 착수되었는데, 이 투자 규모는 쌍방을 주식회사가 해외에서 한 최대의 투자이다. 그는 또한 북경 동부 교외에 있는 통시안의 고급 고문이며, 대한민국 충청북도의 중국 명예대사이다.

“54세이지만, 저는 아직도 젊고 저에게는 인생은 60세부터 인생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벼들을 쌓듯 차근차근 말이죠.” 이씨는 매우 중국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말을 마쳤다.

10 Tuesday, July 16, 1996

LIFE/PEOPLE/ENTERTAINMENT

Scholar caps a dynamic career

By Chen Ping

If Beijing University had its own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Lee Yeong Joo would surely be listed. Last Thursday, Lee became the first scholar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earn a doctor's degree from the top Chinese university. And at the age of 54, he is probably the university's oldest graduate.

"This is the most unforgettable thing in my life. I think *Beida* (Beijing University) and thank the great Chinese nation," the Korean scholar said excitedly after the grand graduation ceremony at Beijing University. "My success is inseparable from the guidance and support of my teachers at *Beida*."

To Lee, it was a long-cherished dream fulfilled. He was admitted to study for a doctorate at Beijing University in May 1993 after completing a one-year senior-level research class at the university during which he wrote a thesis entitled "ROK-China Relations and Asia-Pacific Situation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good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China.

Lee studied for a doctorate in International Politics under that department's chairman, Professor Liang Shoude.

Three years later, Lee presented his academic achievement to *Beida* and to his teachers. On May 30, Lee defended his doctoral dissertation entitled "China's New Diplomatic Strategy and ROK-China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China's diplomatic policies after the Cold War.

In his thesis, Lee defines the modern period of China's diplomatic relations as beginning at the end of the Cold War, a period in which the pattern of world society has been moving in the direction of multi-polarization. In such a context, Lee argues, China adopted a multi-dimen-

sional strategy based on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first proposed by the late Premier Zhou Enlai to establish friendly and co-operative ties with countries worldwide.

Lee holds that China's new diplomatic strategy is one of independence, peace, principles and flexibility. It shows China's demeanor and position as a big and important country in the world.

He notes that the so-called "China threat" doesn't hold water because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demands a favou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the final part of his thesis, Lee discusses the historic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n ROK-China relationship and its contributions to the Asia-Pacific region.

A seven-member committee unanimously gave its thumbs-up to Lee's dissertation, calling it "objective, convincing, fair and equitable."

"Nothing (in academia) is simple and nothing can be perfect, though I have tried to do it perfectly," Lee said of his own dissertation.

But Professor Liang thought more highly of Lee's efforts.

"As a foreign student, his understanding of China's diplomatic issues is sound and accurate. His discussion of China's new diplomatic strategy is fairly deep and comprehensive," Liang said.

"I'm glad and feel honoured to have such a fixed-to study together China's diplomatic issues."

But the three years have not been easy for Lee.

At the same time Lee has been working on his doctorate, he has been the vice-president of Shang-Hang Wool (SHW) Ltd., one of the largest undergarment manufacturers in the ROK. Lee

new heads SHW's Beijing office.

"I felt great pressure," said Lee, tall, strongly-built and energetic. "I had to work on my business while studying for my doctorate. So I had to sleep less to read all the required materials."

"I am even prouder to be granted the doctorate," said Lee, capped and gowned, a PhD diploma in hand, and surrounded by his family and scores of relatives and friends coming from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special occasion.

Lee said the Beijing University Press will later this year publish a book based on his dissertation because he was the first foreign student at Beijing University to write about China's new diplomatic policy.

Though the success of China's new diplomatic policy prompted Lee to work on his dissertation, Lee claimed he was also greatly influenced by his family.

At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1368-1644), one of his ancestors came to China and passed the imperial examinations and returned to Korea as a noted scholar and later a prime minister.

Ever since, studying Sinology became a family tradition.

Lee Yeong Joo is the 19th generation of the family. He majored in Chinese at college and later went to Taiwan Province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for his studies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ee came to China for the first time in 1989, three year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ino-ROK diplomatic ties, in the capacity of a businessman.

"My heart pounded wildly when the plane was touching down. My eyes were brimming with tears," Lee recalled.

"Because of my family tradition, I love China deeply, second only to my motherland," Lee said in fluent and idiomatic Chinese and with pride.



Lee Yeong Joo.

Lee said he was familiar with "I Ching" ("Book of Changes") and the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which he quoted extensively in his thesis.

"My wish is to practise Chinese calligraphy and to collect Chinese curios," Lee said, pointing to a blue-flowered porcelain bowl he bought at the Jitong Curio Market.

One is hard-pressed to assign a title or moniker to Lee, who is a learned scholar, a promising entrepreneur and a goodwill envoy.

Apart from his academic pursuits, Lee has mad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He noted that his study of China's new diplomatic policy

made him confident in China's future.

Last May, construction on SHW-invested textile plants began in Shanghai and Jilin Province, costing \$59 million — the largest investment SHW has made outside of the ROK thus far.

He is also the senior consultant for Tongkian, Beijing's erstwhile asbestos county, and an honorable ambassador to China for ROK's Changbeung-buaks Province.

"At 54, I still feel young. For me, life begins at 60. Whenever said a proverb, I'll do my best for the development of ROK-China relations," he said with a smile.

세계 5인의 '中國通' 선정

(경제일보 1999. 09. 25)

나와 중국의 꿈을 수 없는 인연

한·중수교 전인 1989년에 그는 한국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대외협력부부장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교류의 물꼬를 텄다. 그 후 그는 북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이 박사는 일찍부터 가문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뿐만 아니라 또 한국 내 가장 유명한 중국 전문가이다. 작년 그가 저술한『중국의 새 외교 전략과 한중관계---덩샤오핑(鄧小平)의 평화와 발전론』은 한국 최초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이다.

그는 "마치 역사가 나를 하여금 한·중 두 나라 각 방면의 교류 상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나를 선택하여 한 것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떠나서는 이루어 질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나는 중국으로 갈 수 없었을 것이고 중국도 나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은 중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게 하였다. 때문에 나는 박사논문의 제목 역시『중국의 신 외교 전략과 한중관계』로 정하였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건설을 목표로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신외교 사상이 국제교류와 국제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치에 맞고 논리적 있었기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박사는 중국 경제정책, 정치체제 등 다 방면의 문제 연구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의 발전방향, 21 세기의 한·중 경제의 협력과 발전, 중국의 정치체제개혁 분석 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박사는 '한·중경제교류는 두 나라가 국교를 맺은 7년 남짓한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자면, 성장과정 중에 있는 투자기업의 법률 규칙 제도상에서의 연관성, 투자환경에 대한 파악과 선택 등 문제들이 그것인데 이것도 그의 연구 영역 중에 하나라고 했다.

현재 그는 한국의 민주당의 국제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주요 업무는 외국 정당과의 연락, 당과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자료를 제공하며, 국제 관계사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박사는 "나와 중국의 꿈을 수 없는 인연이 한·중 두 나라 관계발전에 더 노력하게 만든 것 같다"고 하였다. 업무관계로 그는 거의 매달 중국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의 고위급 당정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일부 국제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류 하며 그가 소속된 당과 중국공산당과의 깊은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박사는 "나는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나라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이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들의 소원입니다. 나는 곧 나 자신과 중국과의 특별한 연분을 필연으로 생각하며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연구를 진행 할 것이고, 중국과의 교류와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我和中国有不解之缘

李映周博士
现任韩国新政治国民会议(执政党)国际协力委员会副委员长。



早在中韩尚未建交的1989年,他就作为韩国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海外发展部部长来华拓展韩中交往的渠道,后又在北京大学获国际政治学博士学位。李先生早年受家庭熏陶,不仅能讲流利的汉语,还是韩国著名的中国专家。去年他写的《中国的新外交战略和韩中关系——邓小平的和平与发展论》一书,是韩国第一部系统论述邓小平理论的专著。

好象是历史选择了我,让我在促进韩中两国各方面的交往上做了许多工作。这其实与中国的改革开放政策是分不开的。没有改革开放,我去不了中国,中国也不可能接纳我。邓小平先生的改革开放思想使中国发生了巨大变化,让世界瞩目中国。因此,我的博士论文选题是《中国的新外交战略和韩中关系》,我认为邓小平的新外交思想以对外维护世界和平、对内服务于国内建设为宗旨,坚持实事求是的原则,在处理国际交往和国际事务中有理有力有节,取得了一系列巨大成就。

为了使更多的韩国人了解中国,我还从事对中国经济政策、政治体制等问题的研究。如东北亚局势与韩中关系发展方向、21世纪的韩中经济合作与发展、中国的政治体制改革分析等问题。韩中经济交流在两国建交7年多的时间里取得了飞速发展,但也存在很多问题,如发展中的投资企业在法规制度的连贯性、投资环境的把握选择等问题,也是我的研究领域。

作为韩国执政党——新政治国民会议国际合作委员会的副委员长,我的主要工作是代表我们党进行与外国政党之间的联络,为党和政府的外事决策提供参考,处理好党的国际关系事务。我与中国的不解之缘决定了我对韩中两国关系发展的特别关注。由于工作需要,我几乎每个月都要到中国,联络党政高层人士的互访,沟通对一些国际问题的意见和态度,探讨我党与中国共产党之间深层次的交流与合作等。

我还积极地致力于朝鲜半岛的和平统一事业。半岛的和平统一是我们国家和民族的共同愿望,也是世界一切爱好和平的国家和人民的愿望。中国与韩国和朝鲜的特殊关系,决定了中国的突出作用。我将利用自己的优势开展理论研究,加强与中国的沟通和联络,在争取中国政府和人民的支持方面,发挥别人起不到的作用。

외국인이 본 중국 (기고)

(인민일보 2000. 01. 12)

중국 : 발전 전망이 광활한 나라

인류는 이제 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 서고 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21세기로 넘어 가면서 사람들은 아시아를 더욱 주목하고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주목할 것이다. 중국은 20세기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로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민족응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의 경제는 계속 고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아시아 경제 위기의 충격을 물리쳤고 인민폐를 평가 절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아시아 국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 중국은 지금 적극적인 발전, 과학기술교육 진흥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경제보호, 가족계획, 개방정책 등 네 가지 기본국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과 기본 국가정책의 순조로운 실현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서 중국을 더욱더 강대해지게 할 것이다. 중국이 발전하고 또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여야만이 세계평화와 발전을 논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는 중국의 발전에 대하여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보면서 나는 중국이 세계 평화의 안정 및 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중국정부는 언제나 자주 독립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였으며 특히 개혁 20여년 이래 현실을 직시하고 효과를 중요시 하며 실제에서 출발하여 폭넓게 교류하고 국제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이론적이며 결단성, 합리성, 등 조리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중국의 대국 품모와 재능을 과시하였으며 세계무대에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홍콩과 마카오의 순조로운 귀환은 중국정책의 조예 깊은 외교수단과 뛰어난 관리 능력을 증명하였다. 중국의 외교는 성숙되었으며 또 성공적이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부르짖지 않으며 초강대국을 원하지도 않는다. 21세기의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다. 한중 두 나라의 수교 역시 중국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금년은 한중 수교 8주년 되는 해로 두 나라의 관계는 여러 영역에서 크나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짧은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국가 순회의 상호방문을 실현하였다. 두 나라의 무역액은 이미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경제협력 방면에서도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방면의 교류는 또한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한중 두 나라는 문화가 유사하고 지리상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교류협력의 전통이 있다. 이처럼 양국은 경제적인 상호 보완이 강하여 각 방면의 교류는 기타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한국과 중국의 교류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중관계의 밝은 미래는 정확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계로 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쌍방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대국으로서 남북 쌍방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정부는 일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와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중국경제의 발전과 국제 지위가 날로 높아 가면서 중국의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00年1月12日 星期三 第六版

人民日報

外国人看中国

人类正在迈向21世纪。当历史翻开21世纪的新篇章时,人们将更加关注亚洲,更加关注中国,也更加关注韩中两国的交往与合作。

中国自20世纪70年代末实施改革开放以来,综合国力不断加强,经济实力、国防实力、民族凝聚力空前提高。中国经济近年来一直保持高速增长,顶住了亚洲经济危机的冲击,实现了人民币不贬值的坚强承诺,对亚洲国家迅速摆脱困境作出了积极贡献。中国目前正在实施着可持续发展、科教兴国等战略,实施保护环境、保护耕地、计划生育、对外开放等四项基本国策,这些战略和基本国策的顺利实现,将会使中国在政治、经济、外交、文化、教育等各个方面更加强大。中国发展了,中国的经济发展了,才能谈得上世界的进步和发展。中国对于亚洲和世界有着举足轻重的作用,我对中国的发展前景充满了希望和信心。

从中国的对外政策上看,我深信中国会对世界的和平、稳定与发展发挥更加积

极的作用。中国政府一贯奉行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特别是改革开放20多年来,求实重效,一切从实际出发,广交朋友,对国际事务的处理,冷静果断,有理有利有节,展示了中国的大国风范,树立了良好的国际形象,确立了在中国在世界舞台上的大国地位。香港和澳门顺利回归证明了中国政府精湛的外交艺术和卓越的管理能力。中国的外交是成熟的,也是成功的。中国不称霸,不做超级大国。在21世纪的国际

文化接近、地理位置上相邻,有历史的交往传统,经济上的互补性强,在各方面的交往都有其他国家所不可比拟的主观优势。我相信,中国加入WTO之后,韩中两国间的交流与合作将会更加扩大和发展。韩中关系的前景看好,必将朝着正确的方向不断发展,并逐步成为影响亚洲乃至整个世界和平发展的重要关系。

中国作为与朝鲜南北双方建立外交关系的大国,对南北双方的政策将影响着半岛的稳定与和平。中国政府一贯主张积极支持半岛的和平统一,维护半岛的稳定与发展并为此作出了积极贡献。随着中国经济的发展和国际地位的日益提高,中国对半岛的稳定与统一也将发挥越来越大的作用。

中国:发展前景广阔

李映周(韩国)

舞台上,中国的角色将越来越重要。韩中两国建交,也是中国外交成功的体现。今年是韩中建交第8个年头,两国关系在各个领域都取得了巨大成就,实现了短期间内最高领导层的多次互访。两国间的贸易额已突破200亿美元,在经贸合作方面成为互依互存的重要的合作伙伴,在科技、教育、文化、体育等各个方面的交流与合作也都有重大的发展。韩中两国

作者简介:李映周,国际政治学博士,现任韩国新政治国民会议(执政党)国际协力委员会副委员长。他1996年5月在北京大学国际政治系通过论文答辩,成为第一个拿到北大博士学位的韩国人,现被聘为北京大学的客座教授。

올림픽 경축 한중 슈퍼 콘서트 축하의 말

온통 꽃 향기로 봄기운이 가득 찬 베이징(北京)의 새 천년을 맞는 첫 번째 봄날입니다. 더욱이 베이징(北京)은 2008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자신감과 기대로 부풀어있습니다. 베이징(北京)에서의 올림픽개최는 모든 중국국민의 소망이고 아시아 사람들의 소망이며 더욱이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CIJ국제회사'를 대표하여 베이징(北京)의 올림픽유치 신청이 성공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베이징(北京)올림픽 유치신청 위원회와 공동으로 거행하는 '韓中슈퍼콘서트'는 베이징(北京)의 2008년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韓中 양국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베이징(北京)의 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양국 국민의 소원과 복경에 행운을 기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의미 있는 문화 예술활동을 통하여 'CIJ국제회사'는 韓中 양국의 문화·경제 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 하고자 합니다. 나와 우리 'CIJ국제회사'의 전체 동료들은 중국을 사랑하며 중국이 날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베이징(北京)이 올림픽 유치신청을 한 이 중요한 시각에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베이징(北京)을 홍보하고 찬미하여 2008년의 올림픽의 성화가 중국과 베이징(北京)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아시아의 자부심과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베이징(北京)은 3000년의 역사가 있는 세계문화 명승지로서 중국의 정치·경제·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베이징(北京)에서의 올림픽개최는 스포츠와 문화가 어울어진 올림픽정신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화세기단 에서 다시 한번 새 천년의 종소리를 울리며 올림픽유치 신청을 위한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소리는 7월의 모스크바 하늘까지 전해질 것이며 전세계의 구석구석에 전해질 것입니다. 행운도 올림픽도 베이징(北京)의 것이며 영광도 베이징(北京)의 것입니다!



在世纪之交和千年更替的第一春,春意盎然的北京迎来了参加中韩超级演唱会的两国演艺界明星们。他们在距离国际奥委会投票决定2008年奥运会举办城市倒计时还有82天时,放歌宏伟的中华世纪坛,为北京申奥加油助威,这是一项颇有意义的活动。我代表北京奥申委和北京1300万人民预祝中韩两国艺术家们演出成功,感谢中韩两国艺术家们为北京申奥所作出的努力,我还要特别感谢韩国CIJ国际公司董事长李映周先生和CIJ国际公司全体员工,以及歌华集团为此次演唱会付出的辛勤努力,感谢韩国三星集团及韩亚航空对活动的大力支持。同时我希望通过这项中韩两国的文化交流活动进一步加深两国人民的传统友谊,祝愿两国人民的友谊代代相传。

众所周知,中国是具有5000年历史的文明古国,北京是一座具有3046年建城史的世界历史文化名城。进入新世纪,中国和北京面临新的发展机遇,改革开放使得中国和北京取得了前所未有的成就。以“新北京、新奥运”为口号,北京的申奥工作正在

围绕“绿色奥运、科技奥运、人文奥运”三大主题顺利进行。其中“人文奥运”的一层重要含义是:在北京举办2008年奥运会,将使12亿中国人民更加广泛地与世界各国人民友好交流,奥林匹克理想将获得最为广泛的传播,奥林匹克精神将在更大范围内弘扬,奥林匹克运动将得到更广泛的普及,灿烂的东西方文化将在此更加直接地相互学习与融合,从而为世界奥林匹克运动留下极其丰富的文化历史遗产。

北京申办2008年奥运会得到了12亿中国人民的全力支持,也得到了韩国人民乃至亚洲和世界众多国家和人民的高度关注和热情支持,这使北京奥申委的全体工作人员充满了信心。我们坚信北京有充分的能力、充分的实力、充分的条件、充分的决心和热情,我们将奉献给全人类一届伟大的奥运会,选择北京将是奥运史上最价值的历史性选择。

再次祝愿中韩超级演唱会取得圆满成功!



北京奥申委副主席 蒋效愚



CIJ International 会长: 李映周

在新世纪的第一个春天里,北京处处洋溢着春的气息,花的芳香,更蕴藏着对举办2008年奥运会的自信和期望。

在北京举办奥运会是全体中国人民的心愿,也是亚洲人民的心愿,更是全世界爱好和平与发展的人民的心愿!我,代表韩国CIJ国际公司,衷心地祝愿北京申办奥运成功!

今天,我们与北京奥申委共同举办的韩中超级明星演唱会,就是为北京申办2008年奥运会助威,以韩中两国美妙的歌声来表达两国人民的心愿——声援北京!祝福北京!

同时,通过这次有意义的文化艺术活动,CIJ国际公司希望为韩中两国的文化、经济交流开创一个新的局面。

我和我们CIJ国际公司全体员工热爱中国,希望中国日益发展,在北京申奥这一关键时刻,我们将尽最大的努力宣传北京,赞美北京,让2008年奥运的圣火,带来北京的发展,带来中国的辉煌,带来亚洲的自豪与光荣!

北京是有3000年历史的世界文化名城,是中国政治、经济、文化中心,在北京举办奥运会将充分体现推崇体育与文化的融合的奥林匹克精神。

今天,我们在世纪坛再一次敲响新世纪的钟声,发起申奥的最后冲刺。这一钟声会传到七月的莫斯科上空,会传遍全世界的每一个角落。

好运属于北京!奥运属于北京!光荣属于北京!

한·중 경제협력의 『사절』
(인민일보 2001. 5.25.)

이영주박사를 만나본 사람 들은 모두 그를 '중국통' 이라 부른다. 한국의 '새천년민주당'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인 그는 중국의 지리, 역사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구사하는 중국 어 역시 정통 북경 말투이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럽 및 아시아 뉴스포럼에 참석한 이영주박사는 5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왕성한 정열과 해박한 지식, 민첩한 사고력을 보여 주었다. 명조 초기 그의 선조인 목은 이색선생은 중국에 와서 명조 조정의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그 후부터 한학은 '한산 이씨' 가문의 오랜 전통이 되어왔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였으며 한중수교 전인 1989년에 포항제철 대외 협력부 부장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교류의 물고를 텃다. 그의 한학에 대한 열정과 중국에 대한 두터운 애정은 반백이 된 그를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에 지원하게 하였으며 1986년 3년의 피나는 노력으로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중국의 정치와 외교정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자신의 저서 「한중관계와 아시아 주변정세」, 「중국의 신 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중국 외교이론 및 실천」 등의 책에서 아주 심도 있게 중국의 외교정책 및 한중관계 발전전망을 피력하였다. 1991년 포철 북경 수석대표를 맡으면서 대 중국 수출량을 그 해 15만톤에서 1993년 190만톤까지 증가시켰다. 그가 편찬한 「

포항제철과 중국」, 「중국 철강시장 분석과 전망」은 한국 철강회사의 대 중국 협력에 관한 지침서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청구건설 북경지사 수석대표와 주중 한국건설협회 초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중국 건축관련 법령집」을 번역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한국 건설회사가 중국 관련법규와 시장을 이해하고合作的 길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이영주박사는 (주)쌍방울의 부사장 겸 중국 '쌍령법인 유한공사'의 회장직을 역임하였고, 1998년부터는 한국 새천년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서울과 북경을 오가며 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그는 "양국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연방이며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양국 국민이 공동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중 양국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010)65003109

人民日报 经济纵横
海外版
PEOPLE'S DAILY OVERSEAS EDITION

提起李映周,凡同他接触过的人,都称他是“中国通”。李映周是韩国新千年民主党国际协办委员会副委员长。他不仅熟知中国的地理、历史,连说话也是一口北京腔。李先生于2000年10月在汉城参加欧洲和亚洲举行的新闻论坛大会,他已是59岁的人了,但精力十分旺盛,待人十分热情,他那渊博的知识、敏捷的思维,给人留下了深刻的印象。

李映周热爱中国,从小就对中国和汉文化有着深厚的感情。据他介绍,早在明朝初年,他的先祖穆隐李穡先生就来到中国,并参加了当时明廷的科举考试。从那时起,学习汉语就成了这个韩山李氏家族的传统,到李映周一辈已是第19代了。从小时候起,李映周就受到汉文化的熏陶。中学毕业后,他进入韩国成均馆大学学习中国文学。早在中韩尚未建交的1989年,他就作为韩国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海外发展部部长来华拓展韩中交往的渠道。出于对汉学的热爱和对中国的深厚感情,年逾5旬的他,1993年5月考入北京大学国际政治系,经过3年的刻苦学习,终于梦想成真,成为韩国有史以来的第一个中国博士。

李映周对中国的政治和外交政策有着很深的研究和造诣。他先后出版了《韩中关系与亚太局

势》、《中国的新外交战略和韩中关系》、《中华人民共和国外交理论与实践》等书,极其深刻地阐述了中国的外交政策以及韩中关系发展的前景。

1991年,李映周出任韩国浦项综合制铁株式会社北京办事处总代表,使这家企业向中国出口的钢铁由当年15万吨猛增到1993年的190万吨,他撰写的《浦项制铁与中国》和《对中国钢铁市场的分析和展望》,成为韩国钢铁公司同中国寻求合作的指南。此后,他出任韩国青丘建筑株式会社驻北京首席代表和韩国驻中国建筑协议会首任和第二任会长,主持翻译出版了《中国建筑关联法令集》,这本书为韩国建筑行业了解中国有关法规、开拓中国的市场和加强两国在建筑领域的合作,起到了积极作用。1995年,李映周担任韩国双铃针纺会社副社长,并兼任中国双铃法人有限公司董事长。

从1998年起,李映周就担负起韩国对外联络高级官员的重任。作为韩国新政治国民会议国际协力委员会副委员长、韩国新千年民主党国际协办委员会副委员长,他穿梭于汉城至北京之间,为推动韩国与中国在政治、经济、文化等方面的合作,付出了心血。他充满激情地告诉记者:“韩中两国是一衣带水的邻邦,增进友谊是两国人民的共同愿望。我将继续全力以赴,为促进韩中友好合作做出力所能及的贡献。”

韩中经济合作的『使者』

记韩国友人李映周

本报记者 翟启运



中國通 어느 분야에 누가 있나?

인맥 · 전문가 부족, 중화권 과실따기 역부족

중국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갑자기 다가온 느낌이다. 올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확실한 상황에서, 베이징(北京)이 또다시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자 중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WTO 가입과 올림픽 특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한국 내 관심도 전례 없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갑작스레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호들갑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의 부상이 20여년간 진행돼 온 장기적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유치를 보고서야 비로소 중국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때늦은 인상을 준다. 이는 이야기다.

중국을 보는 한국의 관점은 이중적이다. 거대 중국에 한국이 짓눌려 질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하나다. 또 하나는 국제정치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힘에 겹맞는 파트너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관점에서 보든 중국은 한국이 국제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연적으로 깊숙이 관계해야 할 상대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한국의 준비다.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놓고 한국이 신대륙을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떠는 현실은 스스로의 준비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중국공략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가 육성과 정계 · 재계 · 학계 차원의 인맥형성을 게을리 했다는 이야기다.

중국이 오히려 한국 내 인맥 쌓기에 적극적

인맥형성 노력은 오히려 중국 쪽이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노력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측이 대사관을 매개로 한국 내 친 중국 인맥형성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한국 정계와 재계, 학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소식통은 역대 주한 중국대사들이 국내 인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면 중국측의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측은 한국 내 인맥을 통해 이미 상당 수준의 고급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우다웨이(武大偉) 주한대사가 김중권 현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베푼 것이 한 예다. 만찬 시점은 김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임명되기 약 10일 전. 우다웨이 대사는 당시 민주당 내 소식통으로부터 김 대표의 거취를 전달받고 그와 친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주한 중국대사들은 집권당뿐 아니라 야당 유력 인사들과도 의도적인 접근을 해왔다. 소식통들은 중국대사관이 재계와 인맥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내 고위 직원들이 한국 재벌 그룹들을 분담해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 재계 역시 주한 중국대사관을 중국공략을 위한 주요 채널로 삼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인맥형성에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지역 세력균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8월1일자로 주한 대사관 무관인 ‘양스리엔(楊錫聯)’ 대령을 소장(한국의 준장예해당)으로 진급시켜 격상시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이 장성을 해외 주재 무관으로 임명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12번째로 한국주재 무관을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략적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대무역시장에 걸맞는 전문가 육성해야

한중수교는 올해9년째다. 1992년 8월24일 수교 전 44억달러에 불과했던 상호교역액이 지난해 312억달러를 넘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에 56억달러 무역흑자를 안김으로써 한국의 최대 흑자시장이 됐다. 정치 · 외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결론이다. 중국에 걸린 한국의 이해는 앞으로 더욱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국에 걸린 이해가 큰 만큼 중국 내 인맥형성과 전문가 육성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중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중국전문가와 인맥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계와 재계, 학계 중 중국통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는 재계로 꼽고 있다.

정계의 중국통은 민주당 국제협력위 이영주 부위원장이 단연 1순위로 꼽힌다. 베이징대 정치학 박사 출신인 이부위원장은 과거 해외공보관 및 쌍방을 베이징 지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우이(吳儀), 리란칭(李嵐清) 등 중국 부총리급 고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와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김중권 대표 방중 때 사전에 없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주선했을 정도로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은 외교부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중국 발전형세하의 한국의 경쟁력 이해
中国MBA (2004. 05月 號)



한국 국무원 부총리(당 정치국 상무위원) 과 반갑게 인사
问: 글로벌화와 중국이 세계공장이 되고 있는 요즘 한국기업은 어떠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박사님은 중국기업 관리에 대한 어떠한 견해가
있습니까?

李映周博士: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요점은 세가지로 귀납 해볼 수 있습니다.귀납 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 경제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능력 있는 기업인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개발과 그들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정부와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처럼 단체정신을 중시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죽을힘을 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2002월드컵 때의 한국대표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선수는 체력이 소진되어 경력이 일어나 퇴장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상대방의 슈팅을 막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러한 전력투구의 정신으로 일을 합니다. 한가지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단계적은 토론을 거쳐 일하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첨단정보통신산업과 세계 제조장인 중국기업이 접촉한다면 한중 양국 기업의 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人物 INTERACTIVE
中国崛起形势下的韩国竞争力解析
访韩国“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李映周博士
文 / 尹惠真
[Text columns and image]

李映周, 시대의 풍조를 뛰어넘은 중국으로의 투자
亚洲资本 (2004. 05月 號)

이영주 : 한중경제의 민간사절

대부분 한국 젊은이들이 영어와 일본어 배우기에 힘쓸 때, 이영주는 중국어를 선택했고, 이 선택은 뒤 이은 그의 40년의 인생에 가장 큰 보답을 했다. 한중 수교 전,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힘쓸 때 이영주는 중국 투자기업의 1세대로 중국에 들어가, 포항제철의 중국대표처를 설립하였고, 설립 과 함께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당시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반해 이영주는 6억 인민폐 투자규모로 한국내 가장 큰 내의 전문생산 회사인 (주)쌍방울의 중국진출을 주관했다. 한국의 정계, 재계, 학계의 친미성향에 치우쳐 있을 때, 이영주는 변함없이 중국을 견지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한중사이를 왕래하며 각방면의 교류를 신속히 처리했다. 오랜 시간동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단지 값싼 노동력에 의한 제조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첨단산업의 진출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영주는 - 이하생략



“中国通”看中国 sinologue's view about china

文 / 杨慧萍

그는 1999년 중국(경제일보)가 선정한 “세계 5인의 중국통” 중 한사람이다. 16년 동안 300여 차례 중국을 왕래하였고, 각종 한중간의 회의에 참석 할 때는 통역을 대동하지 않을만큼 유창한 중국(북경)어를 구사한다.

그는 외교가로서, 한중 경제 교류에 사자(使者)이다. 1992년 한중 수교당시 그는 막후에서 아주 깊은 노력을 하였다. 오늘날 그는 많은 중국의 성장(省長)에게 중국 경제 발전의 계획을 위한 자문을 하며 중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5월 중순, 중국을 방문한지 2주가 되지않아 허베이성(河北省) 省長의 고급 고문의 자격으로 하북성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회의에 참석 하기 위하여 다시 북경행 비행기를 탔다.

“이번 중국행이 올해 몇째 방문일까? 여덟번째, 아니면 아홉번째?” 이영주 본인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단지 16년 동안 매해 스무 차례 이상 방문한 것으로 기억할 뿐이다. 중국에서, 그는 고위급 관리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는 “중국에서의 1년 동안 생활은 문제없다.” 고 웃으며 말한다.

이하 중략----

WHO IS WHO 人物

他是一位长者, 言语充满睿智, 具有返朴归真的真知灼见。

他是《经济日报》1999年评出的五个“中国通”之一。16年来, 往返中国300多次, 讲一口京味汉语, 参加中韩的各种会议从不带翻译。

他是一位外交人物, 中韩商贸往来的使者。1992年中韩建交, 就有他幕后的默默努力; 今天, 他还在帮助中国从韩国引进更多的高端技术; 并担任中国多个省市的顾问, 为中国经济发展出谋划策。

“中国通”看中国

Sinologue's view about China

■ 文 / 杨慧萍 译 / 冯小



5月中旬, 南韩与中国不到两周的李映周又飞回了北京, 作为河北省的省长助理陪同, 他要参加河北省一个投资项目的会议。

“这是我今年第几次来中国了? 第六还是第五次?” 李映周记不起了, 他只记得, 最近16年来, 他每年来中国的次数不少少于20次, 在中国, 李映周结交了不少朋友, 上至高官下至平民, 他笑言“在中国, 坐牢不用花钱都能解决吃住问题”。

中韩经贸友好大使

许多人一定还记得, 为声援北京申办2008年奥运会, 2001年4月27日, 在中华世纪坛举办的中韩世纪国际唱会, 中韩两国近百名全部到场, 盛况空前, 而其幕后的组织者, 就是李映周担任组委长的中日国际公司。

其实, 早在1992年中韩建交之际, 中韩双方通过民间商会进行前期磋商, 已在两国建交前的李映周, 就已经在帮助韩

国商会提供资料, 并邀请双方早日建立有民间向的正式商团往来。

在中韩还未建交的1989年, 中韩国际合制株式会社通过种关系在北京成立中国本部, 当时的首任代表就是李映周, 在计划经济体制下的中国, 钢材都是统购统销, 李映周销售产品的难度可想而知, 不过, 李连商觉得以后在政府工作的优势, 详细研究中国市场经济, 化被动为主动, 1989年顺利进入中国, 1990年向中国出口钢铁15万吨, 1991年达到了90万吨, 1992年则高达150万吨, 李总总经理撰写的《透视钢铁与中国》和《对中国钢铁市场的分析与展望》, 一时成为韩国钢铁公司向中国寻求贸易合作机会的重要参考文献。

1993年, 李映周出任首任建筑株式会社中国本部部长, 把目标转向城市建设领域, 因其出色表现, 第二年, 他被推举为韩国建筑协会中国协议会任会长。期间, 李映周主持翻译出版了《中国建筑关联法令集》, 以便让中国建筑公司了解中国的有关法律和市场规范, 为企业开拓中国市场, 加强两国建筑企业的合作提供参考。

1995年, 李映周出任韩国最大的内农企业双井社社长, 在李的积极努力下, 吉林和上海商家双井社有限公司宣告成立, 李出任董事长, 并在天津办起了来料加工, 双井为此共投入了6300万美金(约人民币5亿), 这是当时最大的一笔海外投资。

回到韩国后, 李映周荣任政院, 担任韩国对外经济高级官员, 并于2000年出任韩国新千年民主党国际协力委员会副委员长。

鉴于李映周对中国经济外交、中韩经贸往来、韩国经济优势的理解和研究, 1999年, 韩国日报评出了全球8位“中国通”, 李映周就是其中之一。

六百年前的渊源

“其实, 六百年前, 我们李家就开始学中文了。”面对本报记者, 有着政治家气质的李映周并没有开玩笑, 李出身于韩国首尔王族, 在明朝初

年, 他的先祖李德李德是一位名士, 参加明王朝科举考试并获进士功名, 并在朝为官近十年, 后因回高丽, 曾任宰相, 对李映周来说, 身为李德李德第十九代子孙是一件自豪的事, 家族学习中文的传统, 从六百年前就开始了。

在八个兄弟中排行老四的李映周, 在学韩语就接受了学汉语的任务, “要学真正的中国文化必须到中国内地去。”不过在六十年代来中国内地学习中文的希望是零, 于是1967年, 25岁的李映周赴北国立政治大学外事系就读, 李映周不仅会写4000-7000个简体字, 就感到韩语的整体字都该会写, 这得归功于他在台湾与小学生们一起上课的日子。

到台湾后, 李映周发现在韩国学习的汉语仅仅是皮毛, 基础的发音不准, 平时在和同学交流时都感到吃力, 更不用说听老师讲课了, 于是, 李决定利用课余时间去当一次小学生, 起因是年龄问题刚上小学长班之外, 李映周下定决心打持久战, 小学校长最终同意让他成为一年级的学生。

“一到放学的时候, 我就成了帮点小忙, 小朋友们都会叫我班长, 那个时候是我的同学李映周。”回忆起当时情景, 李映周不由笑了。

韩国第一位中国博士

1996年5月30日, 是李映周平生难忘的日子, 经过近4个小时的答辩, 他获得了北国立政治大学的博士学位, 当他得知自己是韩国第一位中国博士时, 五

十三岁的李映周激动地哭了, “我可以告慰父母的在天之灵了。”

北国立政治大学毕业后, 李映周回国, 到国上统一部工作, 任研究员, 但中国依然是他内心最向往的地方。

后来, 李映周又进入美国州立大学和亚洲问题研究所, 方向为中国的政治与经济, 自此, 李开始系统地接触中国, “这段时间的研究让我对中国有了更全面的了解, 但要更深入认识中国到北京去。”

1989年, 作为韩国首位到北京的第一个周末, 李映周便迫不及待地一个人来到了向往已久的北京, 北京浓厚的校园文化吸引了他, 他决定到北大继续深造, 于是50岁的他报名参加北大国际政治系课程, 利用业余时间刻苦攻读。

1993年5月, 李映周考入北京大学国际政治系, 攻读博士学位, 在他攻读期间, 李映周曾到北大李映周的导师那里去听课, 并能拿到博士学位, 这是李映周心中最大的遗憾。

三年“寒窗”, 李映周常常说四点起床温习功课, 每天休息时间不足两个小时, 李映周遵守教授的指导, 李映周先后出版了《韩中关系与东亚局势》、《中韩外交理论》等书, 在世的博士论文《中韩外交战略和中国外交外交战略的基本特征, 得到答辩委员会的高度评价。

2003年6月, 李映周撰成了中国政治文化研究, “我要写更多的中国通, 为韩国企业进入中国服务”, 已经加冕之年的李映周依然心中充满向往。

"중국 전문가 정부 차원서 양성해야"

박응식 기자 | 08/02 18:15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겠지만, 민간부문에서라도 먼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중국전문가를 양성해 정부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어 지난 5월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을 설립했다는 이영주 이사장(62.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은 중국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3000명의 인력을 두어 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외교부와 KOTRA의 일부 부서에서만 중국을 상대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간에 풀지 못하는 일도 중국을 끌어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1999년 중국의 경제일보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세계의 중국통 5인`에 선정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1세대 중국 전문가`다. 중국지도부와도 인연이 깊어 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 여당 대표들이 후진타오주석과 강택민 주석을 예방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한·중 수교 직후인 지난 1993년에는 중국의 베이징대학 대학원에 입학해 '중국의 신외교 전략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베이징대학 한국인 박사 1호'의 기록도 갖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성균관대 중문과 3학년을 마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으로 유학길에 오르면서부터 중국과 인연을 맺었다. 대만 유학을 마친 후 1989년부터 포항제철과 인연이 되어 중국을 드나들며 본격적으로 중국정부 및 중국인들과 가까워 졌다. 청구주택 본부장, 쌍방울 부회장 등 경제인으로서도 활약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합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러한 경험과 능력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 중국의 제도와 관습, 법규정 등 중국 현지 사정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특히 40년 전부터 쌓아온 폭넓은 현지 인맥을 심분 활용해 중국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에 윤택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만, 중국과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외교적·경제적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經濟日報 李映周:李映周学中文为了600年前先祖的嘱托

14版 2004年11月9日 星期二

导刊·人物

經濟日報

人生如歌 在时空划出道道轨迹



六百多年前，他的先祖李穡被派到明朝，并考取了进士。自此以后，李氏家族坚持学汉语，代代相传。六百多年后，他成为北京大学第一位韩国籍中文博士，也是第一个获得中国博士学位的韩国人。十多年来他往返中国300多次，是1999年被中国媒体评出的五个“中国通”之一。他被誉为中韩“布衣使者”，中韩友谊之桥的设计师之一，中韩经贸合作的积极推动者。

本报记者 梅绍华
实习生 戴翼飞

李映周学中文 为了600年前先祖的嘱托

600여년 전, 그의 선조 목은 이색의 중국에서의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후 한학(漢學)은 그 가문의 시대를 이어 오며 이어진 오랜 전통은 되었다. 그리고 600년을 넘은 지금, 그는 북경대학 최초의 한국 국적의 박사이며 최초의 중국박사가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300여 차례 이상 중국을 왕래 하며 1999년에는 중국 경제일보 선정 “세계의 중국통 5인”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는 한중관계의 민간사절로서, 한중 우의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한중 우의를 위한 경제 협력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 그의 그러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정도이다. 한국인 이영주는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인 1965년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외교학을 전공 하였고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가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 1993년 50세가 넘는 나이에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에 진학하여 마침내 한국 최초의 중국박사가 되었다. 한중 수교 이전부터 시작한 300여 차례 이상의 중국 왕래는 한·중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헌신적인 공로가 컸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젊어서부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자신은 오로지 중국만을 바라보며 한학 공부에 매진함에 있었다. 무엇이 그에게 것처럼 열정적으로 중국을 공부하도록 하였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 사절이 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는가? 어떠한 매력이 그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일반 서민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모두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기자는 이러한 호기심으로 이영주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기 이르렀다. 그의 분위기와 모습을 보고서는 60이 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만약 그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었다면 훨씬 젊게 느껴질 것이다. 그가 한마디 중국어를 했을 때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정도로 베이징 토박이의 억양을 구사하였다. 이영주 박사는 기자에게 대우경제 연구소 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족화합 위원장 등 몇 장의 명함을 주었다. 기자가 왜 한학을 선택하였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이영주는 600년 가문의 전통이라 답하였다. 이하 생략

[사람 사람] "중국, 알고 가야 실패 안 합니다"

2005. 4. 5

600여 명 회원이 기업에 전문지식 제공

'위협'이자 '기회'인 나라 중국. 하지만 한.중 수교(1992년) 이후 꿈에 부풀어 달려간 한국 기업 3만여 개 중 60%가 실패를 맛봤다. 중국에 대한 무지와 성급함 탓이다.

9일 창립하는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가칭)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지식을 제공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간 중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회원 600여 명을 활용해서다. 포항제철 베이징(北京)사무소 수석대표(91~93년), 청구주택 중국본부장(93년 말~95년 초), 쌍방울 중국법인 부회장(95~98년)등을 지내 경제계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이 회장은 국내 '중국 대학 출신 박사 1호'이기도 하다.

성균관대 중문학과 3학년 때 대만으로 유학가 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96년 베이징대에서 54세의 나이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중국 국영 CCTV가 "한.중 수교로 한국인 최초의 박사가 탄생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비수교국 국민에게 박사학위를 주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방침이었다).

"고려말 원나라와의 외교에 일익을 담당했던 목은(牧隱) 이색 선생이 19대 조부입니다. '중국통인 후손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중국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이 돼가네요." 이 회장은 "땅이 넓은 만큼 중국은 지역마다 사람도, 문화도 다르다"며 "중국 진출에 앞서 사업 아이템이 해당 지역과 잘 맞는지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의 창립총회는 9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다.

이영주 대우경제연(研) 회장 중국유학박사협회 회장 선임

이영주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이 9일 오후 6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리는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가칭)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추대될 예정이다.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는 한국의 중국대학 박사 출신들의 모임으로, 한·중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해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13년째 를 맞으며 현재 중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 수는 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초대회장은 지난 1996년 베이징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에는 중국경제일보가 선정한 '세계 5인의 중국통'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 모색해야
CHINA 21 5월호 기고

Column



李映周
시단법인 중국정책문화연구원 이사장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족화합분과위원장

중국과 전략적 협력
모색해야

동양문화권을 공유하는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우호증진과 경제교류 활성화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한·중 양국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서 상호 긴밀한 동지적 연대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고, 지금은 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고 있다. 또 중국의 발전은 우리에게 있어 위협이 된다고 말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수많은 기업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많은 수가 진출을 하였고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일해야 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국은 해마다 9%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 우리는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상대적 박탈감에 중국이 기회라기보다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위협은 중국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된 듯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 세계 선진국들의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산업분야에 도전을 하

였고 그 도전은 세계로부터 무모함으로 치부되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그렇다. 모두들 한국의 성공을 의심 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최첨단 전자산업분야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다.

또 정치와 문화를 보자. 최첨단 인터넷 환경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보지 못한 문화적 역동성을 만들었으며 세계최초의 인터넷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따라가기보다 이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보다 세계가 더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더욱 당당해져야 할 때이다. '베이트 인 차이'나 '밀려온다' 하여, '생산 시설이 중국으로 이전한다' 하여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집중하여 중국과 차별되고 그들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면 되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 패션이던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옷을 생산하는 100만 명의 생산직이 아니다. 옷의 디자인과 퀄리티를 창출하는 10만 명의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이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분명 우리에게 양날의 칼처럼 이로울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상호 보완적으로 WIN-WIN 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우리의 발전을 위협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발전을 더 많은 기회로 보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하였다.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을 지척에 두고 있다. 중국의 발전을 우리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벌써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구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생명력의 쇠잔으로, 무기력과 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중국통, 중국유학박사 600명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창립 일간 My self (2005. 5월 號)

전문화된 실력으로 한·중 교육발전과 각 분야에서 가교 역할

우리 사회는 박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까. 대체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 달리 말한다. 그 중 하나이겠지만 흔히 사(士)자 돌림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각자 주관에 강해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회의도 일반 회의 시간 보다 길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생각이 깊으면 의견이 많듯이 아는 게 많은 박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적지 않은 수인 600여명이 한·중관계에서 중추적인 일을 조직하고 시스템적으로 해 보자고 나선지 5개월 만에 이뤄냈다. 그 저력은 무엇일까.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창립의 전말과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주 박사(대우경제연구소 회장, 민주평통 민족화합분과위원장)로부터 향후 전개될 사업과 비전을 들었다.

현재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유학 길에 오른 한국 학생들은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2년 수교 이래 13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일찍이 중국 유학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만해도 6백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중국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화된 실력으로 양국 발전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9일 신라호텔에서는 2백여 명의 중국유학박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를 창립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 유학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동창회는 많지만 박사협회는 국내 최초의 일이다. 초대 회장은 중국유학 박사학위 1호인 이영주 박사가 선출되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고 민족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중국과 선린우호 협력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면서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중국에서 각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 대학교 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사들의 모임인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를 결성 하게 되었다.”고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통, 중국유학박사 600명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창립

전문화된 실력으로 한·중 교육발전과 각 분야에서 가교역할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고 민족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중국과 선린우호 협력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면서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중국에서 각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 대학교 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사들의 모임인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를 결성 하게 되었다.”고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사회는 박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까. 대체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 달리 말한다. 그 중 하나이겠지만 흔히 사(士)자 돌림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각자 주관에 강해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회의도 일반 회의 시간 보다 길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생각이 깊으면 의견이 많듯이 아는 게 많은 박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결성하여 창립했다. 그것은 얼마 안가 수 인 600명이 한·중관계에서 중추적인 일을 조직하려고 나선지 5개월 만에 이뤄냈다. 그 저력은 무엇일까.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의 창립의 전말과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주 박사(대우경제연구소 회장, 민주평통 민족화합분과위원장)로부터 향후 전개될 사업과 비전을 들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이영주 박사(우) 초대 회장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수교 13년 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었다.”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했다.

INTERVIEW / 이영주 (사)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중국 푸는 열쇠는 '원칙과 융통성'의 황금비율
CHINA 21 6월호

“처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게 1989년이었죠. 그때 사람들의 옷 색깔은 온통 국방색과 회색뿐이었어요. 그런데 걸모습만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건 큰 오산이었죠. 그들의 일상을 접할 때면 과연 이것이 중국인가, 내가 두려워했던 족의 장막인가, 정말로 철의 장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족의 장막은 개방의 물결과 함께 걷어진 것이죠.” 40~5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자유국가와 정치 노선을 달리했던 중국은 스스로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렸고, 마치 거대한 베일에 휩싸인 것 같은 미지의 나라로 여겨졌다. 그래서 당시 누구나 생전에는 중국 구경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89년 중국대륙에 첫 발을 디딘 이영주 박사의 감회 속에는 신선한 충격이 배어나온다. 89년을 시작으로 중국 대륙과 올해로 17년 인연을 맺은 중국통 이영주 박사. 1999년 중국의 경제일보는 이영주 박사를 ‘세례의 중국통 5인’에 선정하였다. 한국인으로서 베이징대학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당시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 로그르가체프, 유럽연합위원회 주중 수석대표 엔디미언 월킨슨, 중·미 상의 주석 리처드 라담, 주중 헝가리 전 대사 오토유하스와 함께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의 반열에 올랐다. 그를 만나 족의 장막이 걷힌 시대, 중국을 바라보는 눈을 넓힌다. --이하 중략--



“中과 진정한 친구가 될때 기회의 땅”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이영주 회장

“중국은 인맥과 의리,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땀냄새를 맡으며 그들의 오랜 친구로 살아온 전문가들의 힘을 모으고 새롭게 전문가를 키워가는 노력을 기울일 때만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각계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한·중 관계는 크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에 유학해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와 전문가 등 600여명이 모여 결성한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의 이영주 회장(63)은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3000명의 인재로 한반도를 연구하는 반면 한국 정부에는 외교부와 KOTRA 일부 부서 인력만이 중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알자고 하면서도 정작 인력 양성 인프라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

중국 전담 부서를 서둘러 만들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협회의 전문가들을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중국 중시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피상적 논의만 무성할 뿐 정작 중국을 제

600명 회원 민간차원 네트워크 형성 “정부, 전문인력구성·中전담부서 필요”

대로 이해하는 사람과 연구는 대부분 없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지난 4월 이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 회장은 중국 베이징대와 지린대 객좌교수와 한중우호협회 부회장 및 한중대 부총장,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다. 1960년대 중반 성균관대 재학중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유학한 그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83년에는 중국의 베이징대학 대학원에 입학해 ‘중국의 신외교 전략과 한·중관계’라는 제목의 논문

으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베이징대학 한국인 박사 1호’의 기록도 갖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인 1989년부터 포항제철의 대외협력 부부장직을 맡아 양국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한 그는 청구주택 본부장, 쌍방울 부회장 등 경제인으로도 활약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한·중 동반자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 10대 협력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중국연구에 나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회장은 한편 지난해 5월 설립한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을 통해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 중국의 제도와 관습, 법규정과 성공 및 실패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특히 40년 전부터 쌓아온 폭넓은 현지 인맥을 십분 활용해 중국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로 쌓아온 평생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중국을 제대로 아는 중국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포부다.

박응식 기자 ntc21@

중국박사 + 중국외교가 이영주

Legend 传奇



◎文/MAGGIE
攝影/麻明哥

在 大多数韩国年轻人都忙着学习英语和日语的时候，李映周选择了学习中文，这一选择让他在随后的40年中得到了丰厚的回报。中韩建交前，在大多韩国企业都将目标市场放在美国和日本时，李映周作为第一批投资中国的企业代表来到中国，创建了韩国浦项制铁在中国的第一个代表处，并取得了立竿见影的效益。在韩国的政界、企业界、学术界要位被越来越多的美国通占据时，李映周仍然坚持做一个中国通，以民间大使的身份来往于中韩之间，促成各界的交流。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이 서둘러 영어와 일어를 배울 때, 이영주는 중국어를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이후 40여 년 그에게 새로운 형태로 보답하였다. 중한 수교 이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 주력하고 있을 때, 이영주는 가장 먼저 투자기업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중국에 왔다. 그는 당시 한국 포항제철 중국 대표처를 설립하는 탁월한 결정과 추진력으로 이후 포항제철이 중국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한국의 정치계와 재계,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가 미국통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도 이영주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이며 중국통으로서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민간대사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겸허한 ‘북경통’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세계의 5대 ‘중국통’을 선정할 일이 있었다. 이영주는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이영주의 ‘중국통’이란 명성은 한국 기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를 ‘중국통’이라고 함에 대하여 그는 “사람들이 저를 ‘중국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북경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중국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이하 중략-

600년전 조상의 당부를 잊지 않고 실행에 옮기다

人才財富(2006.07 月號)

한중우호협회 부회장, 한국 중국유학박사협회 회장 이영주
이영주 선생: 중한 양국 국민의 우호적 민간대사

이영주 선생은 중국인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1965년 중한 수교 이전, 이영주 선생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여 대만 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리고 1970년 이영주 선생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문제를 연구하였으며, 1993년 50세에 이르러 그는 경북대학 국제정치학과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중국 박사학위를 받은 제1호 박사였다.

60년대 당시 대부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미국과 일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이영주 선생은 40여 년 전인 젊은 시절부터 중국어를 선택하여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열정을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일까? 또한 무엇이 그를 민간대사로서, 중한 양국의 우호적 교량자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힘이 그로 하여금 중국에 그토록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그에게는 중국의 고급관료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벗들이 많이 있다.

기자의 이영주 선생의 방문취재는 이러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하 중략-

600多年前,他的先祖李穡被派到明朝学习时考取了明朝的进士。自此以后,李氏家族坚持学汉语,世代相传;600多年后,他成为北京大学的第一位韩国籍博士,也是第一个获得中国博士学位的韩国人。

近十多年来,他为了中韩友谊、中韩经贸发展而往返中国300多次。而被中国媒体评为“中国通”、誉为中韩“布衣使者”、中韩友谊之桥设计师、中韩经贸合作的推动者,……

他,就是韩中友好协会副会长、韩国中国留学博士协会会长、中国人家喻户晓的“中国通”——韩国人李映周。

李映周： 肩负着600年前先祖的嘱托

——访韩中友好协会副会长、韩国中国留学博士协会会长李映周

■ 本刊记者 柯建刚



李映周先生,中韩人民的友好使者。

记者和李映周先生作为朋友,虽然曾经有过促膝长谈的约定,然而不是南辕北辙,就是阴差阳错,一直未能如愿。

2006年6月10-12日,记者和李映周先生作为湖北省委的客人,又非常巧合地置身于当年毛泽东居住过的东湖南山甲所。天意让记者和李映周先生了却了多年的心愿。

李映周先生有着令中国人好奇的经历:1965年,中韩两国尚未建交,李映周先生被父母送到台湾国立政治大学外交系学习;1970年,李映周先生赴美进修时竟选择了中国的政治与经济作为研究方向。1993年,年近五十的李映周先生考进北京大学国际政治系攻读博士学位,从而成为第一个取得中国博士的韩国人。

当年,众多韩国年轻人把目光瞄向美国和日本,是什么动因让李映周先生选择学习汉语,立志要到中国来读书?是什么力量让李映周先生对中国如此热爱,多年来以一个布衣使者的身份穿梭于中韩之间,搭建友谊之桥?是什么样的魅力让他在中国有如此好的人脉,从高官到黎民百姓,都有他的朋友?

记者和李映周的采访就是从这里开始……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 양국의 역할

21세기 국제질서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무한경쟁을 심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간 경쟁과 협력의 중요 동인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 국제질서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북미와 유럽지역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현재 세계 GDP의 17.1%, 세계인구의 23.2%, 세계무역량의 14.5%, 세계외환보유고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은 중국의 부상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역사적인 개혁개방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래 중국 경제는 매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세계경제의 핵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 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의 경제성장, 15%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세기 말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경제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300~400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중국을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서방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의 생존 및 장기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온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과거 냉전시절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양국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미 상호간의 주요 교역 및 투자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 문화분야에서도 상호간의 인적 교류는 물론 주요 도시간의 자매결연, 문화예술단 상호 방문, 문화원 개설, 광범위한 스포츠 교류 등 문화, 교육, 학술,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 수교 초기 양국관계 발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경제와 정치 영역



이영주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이사장

- ▶ 경력
-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 중국 길림대학 객좌교수
 - 중국 광둥대학 객좌교수
 - 중국 북경대학 객좌교수
 - 중국 병위과기대학 교수
 - 한국 중국유학박사협회 회장
 - (사)한중우호협회 부회장
 - (사)한국청소년연합 총재
 - 한중평화포럼 대표

의 불균형적인 관계도 상당부분 변화되어 양국간 군사교류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 안보 분야의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로 날로 심화,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강화는 비단 한중 양국간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간 관계의 발전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특히 경제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경쟁적 마찰을 비롯해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탈북 난민문제, 역사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안정 요인들은 양국이 공동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분단 이래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 온 안보요인들은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번영을 담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양국간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절실하다. 그동안 동아시아 정상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간의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한중 양국관계 역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그리고 민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완해 국가간 이기주의를 초월한 공동의 이해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민간차원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구축해나가는 주요 동반자로서, 한중 양국은 다양한 차원의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해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는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제전문가와 함께 중국의 “조화로운 세계” 이념을 논의하다 (参考消息 2006. 12. 28)

한국 “중국정책문화연구원” 이사장, 한중우호협회 부회장인 이영주 박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취득한 1호 박사이다. 그는 다년간 중국의 발전문제 등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한중 양국의 우호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최근 본 기사는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화로운 세계” 이념에 관한 견해를 묻기 위하여 그를 취재하였다.

이영주 박사는 “조화로운 세계”의 주장은 “중국이 화해(和諧)라는 개념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현존하는 각종 모순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외교사상이다. 그 문화적 연원은 중국 전통사상 중의 화합(和合)관이다. 조화로운 세계관은 자국과 다른 나라의 이익을 동시에 존중하고, 상호협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국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영주 박사는 중국의 외교정책변화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조화로운 세계관은 “그동안 국제관계학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힘의 논리를 기초로 국가이익을 추구하였던 신현실주의의 논리적 모순과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성과 도덕 그리고 규범적 합의 등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조화로운 세계 이념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국제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영주 박사는 “현재 국제사회에는 매우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가 간의, 지역과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힘의 양각과 물질적 요인이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중요시되어 왔지만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각국은 단편적으로 국가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지역과 지역 간에는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게 되어 인류사회에 많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조화로운 세계는 공동의 안전과 번영, 문명의 다양성 등을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국제사회에서 널리 확대 응용될 수 있다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에 협력을 확고히 하여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관, 안전관, 발전관과 문명관으로서 긍정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영주 박사는 “한국인은 중국의 화합사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화로운 세계라는 새로운 외교이념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돈독히 하여 인류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일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4 参考论坛 2006年12月28日

国际专家纵论中国“和谐世界”理念

国际关系道路上所开辟的另一条新的路径。在考虑与世界的关系问题上,中国始终处在理论思考的最前沿,中国提出的概念在很大程度上都与西方学术界或者关于同类题材的政治作品完全不同。在西方国家,通常是用新现实主义

目的就是为了认真应对目前国际关系要求更多经济独立性的现实。而这正是为实现中共十六大所提出的在2020年之前实现小康社会所必需的,它意味着必须要有一个和平的睦邻友好关系。

“中国未来将会在国际舞台上胜出,但她不会利用自己的胜利把自己的价值和规则强加给别人”,法国国际关系专家皮卡尔日前郑重说道,中国的崛起只会有助于建设一个多极化的、强调多边协调的、更加美好的世界。

50多岁的皮卡尔是地缘政治学博士,近年来在预防国际冲突以及中国事务等领域从事研究和咨询工作,他曾经作为中国

意味着尊重文化多样性,允许各国根据自身历史和特点寻求合适的发展道路。通过今天中东、近东等地的动荡局势,可以看出国际关系仍然建立在冲突理念基础上”,皮卡尔说,“当然人们不能天真地以为当今世界可以忽略地继续政治利益,世界仍将有冲突和战争,但是正因如此,中国关于和谐世界的说法才显得更加重要”,这一理念给世界带来的信息是“改变冲突思路”。

法国国际问题专家皮卡尔:
对建设更美好世界具有独创意义

□本报驻巴黎记者 严明

国际专家为欧盟委员会就中欧关系问题提供咨询,皮卡尔表示,他了解中国领导人近年来提出的“和谐世界”理念,对此深表欣赏,他说,西方一些哲学家和政治家近年来也提到“和谐”概念,但是像中国这样一个正在崛起的大国,主动发出建设“和谐世界”的呼吁,把“和谐”理念上升到政策层面,在国际关系领域是一种全新的声音,提出了国际关系领域一个“新模式”,对于建设一个未来更加美好的世界具有“非常积极”的“独创”意义。

他说,他所理解的“和谐世界”理念,体现了中国追求国家之间“相互尊重”,共同发展

韩国“中国政经文化研究院”理事长李映周是第一位取得中国博士学位的韩国人,多年来一直关心中国的发展,致力于推动韩中两国的友好交流。临近岁末,本报记者就中国提出的“和谐世界”理念对他进行了专访。

李映周说,“和谐世界”的主张反映

同安全和繁荣,保护文明的多样性,成为建立国际合作关系的重要理论之一。李映周认为,目前国际社会的很多矛盾都在抬头,国与国之间、地区与地区之间的对立和矛盾日益加深,国际关系中往往只重视国家实力的强弱,物质因素成为保证国家安全的决定性因素。

这使得各国都片面追求本国利益,造成国与国之间、地区与地区之间无休止的对立和冲突,给人类社会带来了悲剧。强调共同安全与繁荣,以文明的多样性为基础的“和谐世界”观如果能国际得到推广,将进一步促进世界的和平与发展,巩固国与国之间、地区之间的合作,为国际社会确立新的秩序观、安全观、发展观和文明观做出积极的贡献。

李映周说,韩国人熟悉中国的“和谐”思想,在国际关系纷繁复杂的当今世界,中国提出的“和谐世界”的新外交理念对于加强国际社会的合作与和平,促进人类社会的发展,是一大贡献。

韩国“中国政经文化研究院”理事长李映周:
将给国际关系带来积极影响

□本报驻首尔记者 李拯宇

了中国通过“和谐”来解决国际社会现有的各种矛盾的新的外交思想,其文化根源来自于中国传统文化中的“和合”观。“和谐世界”观同时尊重本国和其它国家的利益,强调互相合作,这一理念为维护东北亚乃至国际社会的安全与和平提供了新的动力,将对国际关系带来积极影响。

作为研究国际关系的学者,李映周一直很关心中国外交政策的变化对国际关系带来的影响。他说,“和谐世界”理念摆脱了国际关系学中以实力为基石,片面追求国家利益的新现实主义思想,强调各国采取理性、道德和规范的行动,“和谐世界”的理念有助于确立其

河南澳利机械铸造有限公司
免烧砌块砖机
破石机、砂石线

河南澳利机械铸造有限公司
地址:河南郑州经济开发区
电话:021-64721568 64728977

李映周:该抛弃中国劳务费时代

http://www.sina.com.cn 2008年03月31日 17:12 《环球财经》杂志 文/本刊记者 高韬

《环球财经》:您觉得这些韩国企业撤离中国的原因是什么?对这些非法撤离中国的行为,您的态度是怎样的?

李映周:这就要先问一下它们当初为什么要进来?一是中国的劳务费(劳动费)便宜,二是中国的对待外资的政策很优惠。现在,中国劳动费提高了很多,对外政策也发生了很大的变化:劳动法实施了,税收方面也不优惠了,再加上国际原油价格上涨,这些原因在一起发力,使得部分韩国中小企业承受不了。离开中国的公司,一般都是中小公司,甚至是比小公司还小的公司,没有办法承受,工资发不了,欠款也还不了,这其实也是情有可原的。但我要强烈谴责的是,不应该用这样的方式跑走。

《环球财经》:有观点认为,离开中国的都是中小型韩国企业,大企业都在加大在华投资,您怎么看待这个观点?

李映周:在中国,每一个行业是不是一样的,但无论如何,有的依靠劳务费赚钱的韩国公司,在中国的优势已经没有了,它们来到中国,只看到中国员工的劳务费便宜这一点,没有看到中国拥有的巨大市场。大公司则不一样,三星、浦项、现代看到的是中国的市场。韩国有些到中国投资的企业规模实在太小了,很多是自己带着口袋里的钱跑过来的。来中国之前,根本没有了解中国的投资环境,尤其是中国对待外资政策的变化,有的中国之前得到信息是几年前的甚至是十几年前的,不失财才奇怪呢。

《环球财经》:您觉得这些韩国企业撤离中国的原因是什么?对这些非法撤离中国的行为,您的态度是怎样的?

李映周:这就要先问一下它们当初为什么要进来?一是中国的劳务费(劳动费)便宜,二是中国的对待外资的政策很优惠。现在,中国劳动费提高了很多,对外政策也发生了很大的变化:劳动法实施了,税收方面也不优惠了,再加上国际原油价格上涨,这些原因在一起发力,使得部分韩国中小企业承受不了。离开中国的公司,一般都是中小公司,甚至是比小公司还小的公司,没有办法承受,工资发不了,欠款也还不了,这其实也是情有可原的。但我要强烈谴责的是,不应该用这样的方式跑走。

《环球财经》:有观点认为,离开中国的都是中小型韩国企业,大企业都在加大在华投资,您怎么看待这个观点?

李映周:在中国,每一个行业是不是一样的,但无论如何,有的依靠劳务费赚钱的韩国公司,在中国的优势已经没有了,它们来到中国,只看到中国员工的劳务费便宜这一点,没有看到中国拥有的巨大市场。大公司则不一样,三星、浦项、现代看到的是中国的市场。韩国有些到中国投资的企业规模实在太小了,很多是自己带着口袋里的钱跑过来的。来中国之前,根本没有了解中国的投资环境,尤其是中国对待外资政策的变化,有的中国之前得到信息是几年前的甚至是十几年前的,不失财才奇怪呢。

《环球财经》:那您如何看待中国的发展变化?有人认为,中国市场变化快,可能已经不再是韩国企业的投资福地,您觉得中韩企业将来有怎样的合作关系?

李映周:中国的发展太快了,不是一般的快。有愿望到中国来赚钱的韩国企业,就必须跟上中国的发展节奏。这次确实有很多企业是很悲观的,但我是恰恰相反的。我是非常非常的乐观,中国依然是韩国企业投资的重要区域。中国韩国的企业互补性很强。韩国在钢铁、造船、化学、电子、半导体、汽车领域有一些领先的技术。另一方面,中国的优势,韩国也可以接着吸收应用。作为一个人口还不到一个亿的国家,韩国自己靠自己是不可能实现更快更好的发展的,必须要依靠出口。中国就是韩国产品出口的巨大市场,积极开拓中国内需市场,是韩国企业下一个十年最重要的事情。

이영주 : 중국의 저임금시대는 지났다

三门新闻网 www.smnews.com.cn 2008-3-31 17:12:00 字体:大 中 小 文/本刊记者 高韬

《环球财经》: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중국에서 불법적 철수에 행태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李映周:이 문제는 먼저 그러한 기업들이 당초 무엇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저임금이고 그 둘은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에 따른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노무비는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또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노동법이 실시되고 세수방면도 이젠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원유가는 또다시 상승국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일시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한국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고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노임조차 감당할 방법이 없고 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적 철수에 대하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环球财经》: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라고 하시는데 대기업은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李映周:중국에서 모든 업종들이 동일한 모양입니까? 이유가 어찌 됐든 낮은 노임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미 살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노무자의 노임이 약간 저렴하다고만 생각할 뿐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이와 같이 않습니다. 삼성, 포항제철, 현대 등 대기업들은 중국의 거대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투자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들어 오기 전 근본적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외자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하여 정보는 예전 몇 년 전 심지어 십수년전의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环球财经》:그러면 중국의 발전 변화에 대하여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로 더 이상 한국기업의 투자환경이 좋은 때는 지났다 고 합니다. 장래 한중 기업 합작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李映周:중국의 발전 속도는 전세계의 경제사정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중국의 발전템포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확실히 많은 기업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매우 낙관 적으로 봅니다. 중국은 당연히 한국에 있어는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보완적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은 철강, 조선, 화학, 전자, 반도체, 기차 등 영역에 일련의 우월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장점은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신분으로 전 국가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내수시장만 가지고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은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수출시장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십 년 한국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来源:新浪产经)

이영주 : 한국의 “중국통”

한국의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이사장 이영주박사는 한국에서 알려진 “중국통”이다

그는 일찍이 한국 성균관대학교 중문과에 입학하고 한국의 건국대학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영주박사는 오랜 기간 중국과 한국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해왔다. 1999년 중국건립50주년을 맞아 중국매체들이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잘 아는 세계 제5위의 “중국통”을 선정하였는데 이영주박사가 그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이영주박사는 북경대학교 객좌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회장, 한국청와대 외교안보자문위원, 한중우호협회 부회장으로 있다. 또한 한국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은 외교통상부 관할로 2003년 4월에 설립되었다.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중국정치, 경제 및 문화 방면의 한국 박사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중국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연구원 내지 고문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의 주요 과제는 국가와 기업의 각도에서 진일보하여 중한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깊은 연구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연구원은 정부에 정책과 그 방향을 건의 하고 있다. 현재 연구원은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과 공동연구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박람회와 동북아 발전과 아울러 한국이 어떻게 중국에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북경대학과 공동으로 중국측의 연구과제를 위탁 받아 연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은 한국외교통상부의 지원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국회와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관기관들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다.

한중관계에 대하여 이영주박사는 1992년 양국 수교 이래로 한중관계는 상호보충하고 보완하며 유지되어 있고 양국관계 발전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천안호사건’ 후 양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심각한 정황이 발생하면 할수록 고도의 지혜로 나무랄 데 없이 잘 처리하고 있어 한중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 응당 중국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언어에 능통한 인재 즉, ‘중국통’을 양성해야 한다.

이영주박사는 중국의 국제사회적 역할을 매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단 중국은 아직도 발전도상국가라 여기며 세계의 기타 발전도상국가와 함께 공동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은 발전도상국가의 자격으로 분명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평형과 발전 중에 있어,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분명 중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기획인터뷰

2010년 10월 11일 ~ 10월 18일 9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모색

2010 한중 평화포럼 개최

지난 9월 28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를 하고 (사)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월간조선이 주관하는 한·중 평화포럼이 서울지역 평통 위원들과 관계자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08:30에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국민 의례, 김병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개회사, (사)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영주 이사장의 인사,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오후 2시에는 제2주제 발표 및 토론과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종료했다.

이날, 김병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 한·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란 주제와 또한 이에 따른 ‘북핵문제 및 당면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날의 행사를 주관한 이영주 이사장도 인사에서 “오늘 북한에서는 당대표자 회의를 열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게 대장칭호를 수여했다. 후계 정권유지에 힘을 쏟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과 북핵문제를 연구해야할 시점이기에 중국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여 이 포럼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제1주제로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가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반도 통일이 한·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발표했고 제2주



이영주 이사장



천영우 외통부 2차관

제로는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의 원장인 왕지쓰(王緝思) 박사가 니평 박사(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북핵문제 및 당

면 한·중관계”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13면)

류재복 특별취재국장
yjb0802@hanmail.net

이영주 : 한중 경제협력 ‘민간대사’

중국기업신문(CHINA ENTERPRISE NEWS) 2010. 06. 03

600여 년 전, 그의 조상 이색이 명조에 파견되어 진사에 급제한 이후 이씨 가족은 중국어 공부를 경치해 왔고 그 전통을 대대로 이어받았다. 600여 년 후 그는 베이징대학의 첫 번째 한국국적의 박사과 되었고 동시에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첫 한국인이 되었다. 10여 년 간 중국에 수백 번 다니면서 "중국통", 중한 "포의사자(布衣使者)"와 중한 경제무역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바로 한중친선협회 부회장이고 한국중국유학박사협회 회장이며 중국정치경제문화연구원 원장인 이영주 박사이다.

유젠화(劉建華)/저

5월의 북경은 막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다. 베이징 강아오센터에서 필자는 이영주 박사를 만났다. 그의 중국어가 그토록 유창할 줄은 몰랐다. 그의 기백과 정신 상태는 70에 가까운 나이와는 달리 위엄 있으면서도 유교적 기운이 넘치고 있어 많이 젊어 보였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한중 양국의 민간외교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중국통"의 중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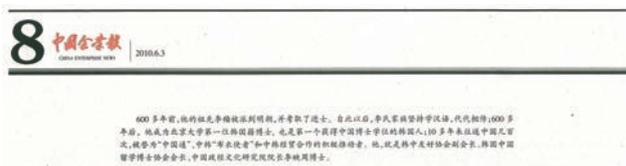
이영주는 필자에게 "우리 가족은 600여 년 전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 이는 절대 빈말이 아니었다. 1942년 한국의 서생가문에서 태어난 이영주는 어릴 적부터 중화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어 공부는 그의 가문에서 이미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어 이영주 세대 때는 이미 제19대에 이르렀다. 1993년 중한 수교 후 얼마 안되어 그는 급급히 베이징대학 국제정치학과에 지원했다. 1996년 54살의 이영주는 박사과정 졸업논문 발표, 답변을 거쳐 순조로이 중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첫 한국인으로 되었다.

"당시 나의 박사논문 제목은 '중국의 새 외교전략과 한중관계'였다. 나는 중국 외교전략연구에 대해 글을 쓴 첫 사람이었다. 당시 서점에는 중국외교 방면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거의 힘들었다. 비교적 민감한 주제였기에 교수가 처음에 내가 이쪽 분야 논문을 쓰는 걸 반대하기도 하였다."고 이영주는 예전 기억을 더듬으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높게 평가하였고 동시에 서방 언론의 소위 "중국위협론"을 반박하였다. 그 후에 책으로 출판되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등소평이론을 논술한 저서가 되었다. 이영주는 중국의 정치와 외교정책에 대해 연구와 조예가 깊었다. 그는 연이어 "한중관계와 아태국세", "중국 외교이론과 실천"등 책을 펴내며 중국의 외교정책 및 중 관계 발전의 전망에 대해 심층적인 논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이영주는 중한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즐겼으며, 포철의 중국 수석대표로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중국에서 투자했던 실제경험과 중국 경제에 대한 연구분석을 기초로 "포철과 중국" 등 연구보고를 작성 하였는바 이는 이 후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협력파트너를 개발할 때의 필독지침서로 되었다. 중한 수교 이래 그는 중한 양국을 수백 번 오갔다. 1999년 신 중국 성립 50주년 즈음에 중국의 한 언론이 미국, 러시아, 한국 등 5개 국가의 외국인들 가운데서 5명의 "중국통"을 뽑았는데 이영주가 바로 이 중의 한 사람이다. 1998년부터 이영주는 한국 민간 대외교류의 중임을 감당하여 한국 새 정치국민회의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새천년민주당(여당)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의 신분으로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03년 5월, 그는 한국에서 중국정치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원장 직을 맡고, "한국의 중국통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 함께 중국 관련 문제를 연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중한경제협력을 추진

중한친선과 중국 개혁개방의 과정을 몸소 지켜본 이영주는 중국의 발전속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에 놀라고 있다"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한 수교 18년 이래 양국의 무역액은 2008년에 이미 1891억 달러에 달하여 38배 증가하였다. 그는 중한경제는 많은 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쌍방의 협력 면에서 잠재력이 아직도 매우 크며 전망이 좋다고 말했다. 이영주는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소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베이징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민간사자가 되는 것이다. 첫 소원은 성취됐고 두 번째 소원은 한창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확실히 이영주는 10여 년간 줄곧 중한 양국을 오가면서 민간사자의 역할을 맡아 양국의 각 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전에 이영주가 한국건설업계의 중국주재협회 회장을 맡았을 때에도 좋은 한국의 삼성건설, 대우건설 등 여러 대형 건설업체가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주고 했었다. 베이징공항 보조도로 옆에 있는 현대빌딩이 바로 이영주 박사가 1994년에 한국현대건설을 도와 중국에서 완성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1991년부터 1993년 까지, 이영주가 포항제철 중국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은 기간 한국 포항제철이 중국에 대한 강철 수출량은 15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그의 영향 하에 무강(武鋼)과 포철은 여러 분야 협력을 하였고 한국강철산업의 선진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도입하였다. 1995년 이영주는 한국쌍령침방회사의 회장인 이봉녕을 설득하여 6억 위안을 투자하여 중국대륙에 방직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금액은 당시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2003년 12월 이영주는 수억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 L.M.N 기술회사를 설립하여 주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업무를 취급하였고 직접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하였다. 그는 한국의 가장 우수한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직접적 투자대상으로 되었다. 삼성, LG 등 한국 기업거두들은 이미 중국을 거대한 생산기지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말하면, 중국은 가장 좋은 시장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아주 큰 동시에 강대한 중국에서 오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충 각도에서 출발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이영주는 말했다. "한국 정치계와 기업계가 중국을 알려면 이영주를 찾아라." 이는 한국 언론이 그에 대한 평가이고, 무릇 중국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많은 한국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컨설턴트가 바로 이영주다.



李映周:中韩经济合作“民间大使”

中国经济的研究分析,撰写了《美国与中国》等研究报告;这成为后来李映周在中国留学中国合作体的重要依据。
“中国建立以来,他在中国工作近10年,1999年中国成立50周年之际,中国一家媒体在报道,李映周等5个国家的海外人士发出了5个“中国通”,而李映周是其中之一。
从1998年起,李映周担任北京国际对外交流协会理事,积极推动中韩民间交流,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2003年5月,他在中国建立了中国政治文化研究社并任社长,“我希望能把中国和中国通联系在一起研究中国。”
2003年12月,李映周领导亿元成立了L.M.N技术公司,主要中韩合作,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2003年12月,李映周领导亿元成立了L.M.N技术公司,主要中韩合作,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2003年12月,李映周领导亿元成立了L.M.N技术公司,主要中韩合作,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中国通”的称谓,李映周是其中之一。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李映周对中国政治和外交政策有着深入的研究和见解,他在中国工作了10年,积极推动中韩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的合作,任了心通。

2012 中国 经济·社会·文化

CHINA

magazine

中国之窗

11·12

〈전병서 칼럼〉

'포스트 후(胡) 시대'의 중국

중국 지하철 대약진 속 잠복된 폐해
中国地铁大跃进隐忧

〈인터뷰〉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영주 이사장

专访 中国政经文化研究院

李映周 董事长

〈한중도시기획〉

경기도 김포시 유영록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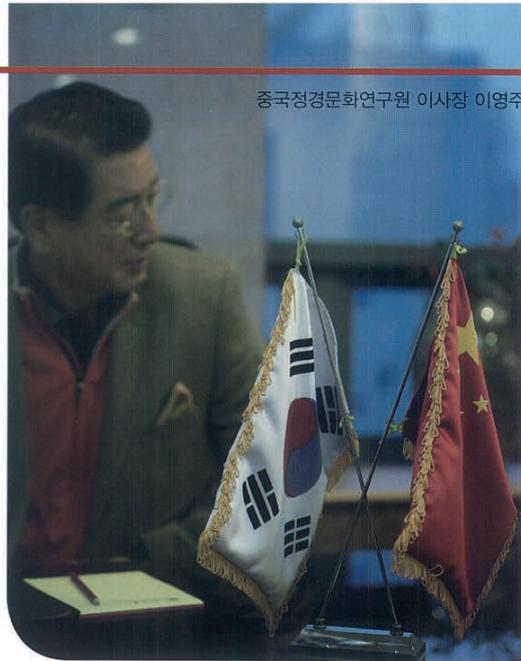
专访-京畿 金浦市 劉永錄 市长

채하연 박사의 중국문화산업

'넓고 푸른 바다, 중국의 공연·뮤지컬시장'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영주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신데요, 중국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중국문화와 중국에 깊은 감정을 지니게 되었고 중국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조 고려말 목은 이색 선생은 일찍 명 나라 초기 중국에 와서 명조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한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었고 19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문의 전통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고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수료하게 되었지요. 65년 성균관대와 자매 결연한 대만의 국립정치대로 유학가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공부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경대학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3년 간의 노력 끝에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다년간 중국정치 외교,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 연구 종사하며 여러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국의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중국사람과 만나고 친분을 쌓으면서 넓고 심오한 중국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은 어떤 곳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은 한중 양국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내고 협력과제를 도출함은 물론,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분야에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학술연구와 정책 발굴 및 우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중국정경문화연구원은 설립 이래, 한반도 안전보장체제, 남북/한중 경제협력 및 관계발전방안,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등 한중간 갈등이나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결과를 한중 정부 및 각종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동북아평화포럼, 한중미래발전포럼 등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50년 가까운 폭넓은 인맥관리를 심본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단체, 기업에 원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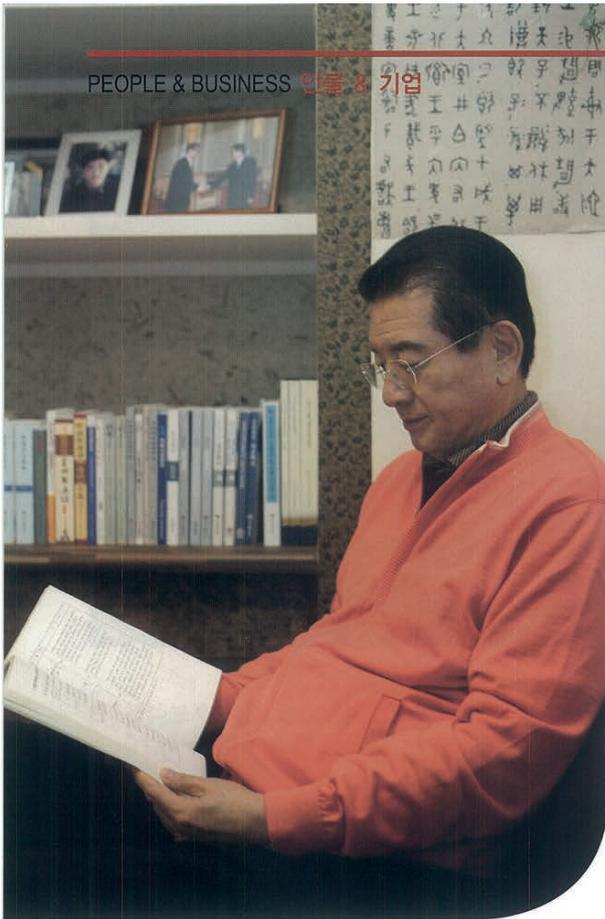
약 50년 간 중국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독보적인 '관시'를 구축하셨습니다. 중국의 어떤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중국관계에 대한 연구를 5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관시'를 구축하였다고 자부합니다.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지금까지 정계, 재계, 학계 및 문화계 최고지도층부터 중간층 지도자(성장, 시장, 실무국장 등)를 비롯해 일반 국민까지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 지금까지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쌓아 온 인맥들은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우호교류를 발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협력에도 일정부분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최근 남북한 간의 공식적 양자관계가 한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색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 통로를 활용한 경제적 측면의 접촉과 협력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 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핵심국가로서 한중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북아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전제조건인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재건을 유도한다는



PEOPLE & BUSINESS 인물 & 기업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담대한 전략과 치밀한 준비, 유연한 상황 대처 등 초인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8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 지도부가 대거 교체되는데, 이후 중국의 경제 사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의 고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내외부적 여러 하방 리스크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중진국함정에 빠질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차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사회 전반분야의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역의존형 경제구조, 부동산시장 불안과 지방정부 부채의 누적, 금융/자본시장의 미성숙, 국유기업의 부실 등 일련의 경제개혁과 공산당(원)의 도덕성, 인권·민주화, 언론의 자율성 보장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

이며,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노령화 문제, 환경오염 등 국내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극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중국의 경제부상은 위기가 기회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경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중소 규모의 기업 활동에 위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중국경제의 부상이 우리기업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경제는 향후 20년 간 최저 5.7~7.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으로 인해 향후 중국시장은 생산기지에서 소비기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야는 소비기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패턴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산업 중심의 성장 및 문화, 관광, 교육, Silver, 보험 등 분야 수요의 고급화,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중국의 내수시장 육성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경제의 신 성장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know/do-how, 조기 현지화 등을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중국 내수판매상품 개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등을 실현함으로써 한중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한국과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오해, 불신, 민족주의 및 상대에 대한 불인정의 팽배 등으로 인해 정치·외교적인 거리감이 확대되고 외교관계가 종종 악화되곤 하는데, 이것은 상대국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강

조하고, 북핵 문제 또한 미국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중국과 북한을 긴장시키고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익을 취하고 군사적/국제관계적으로는 미국에 절대 의존적이라 생각하며, 한국의 대 북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유학한 중국학생들이 결국은 반(韓)한주의자, 민족주의자가 되어 돌아오는 현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변화된 국제역학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익을 우선한 유연한 대중외교를 구사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동맹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균형외교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또한 경제대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요망되며, 이를 통해서 한중 양국간의 오해와 불신, 불인정이 불식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지방단체와 중국 각 도시들의 자매결연 등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중 지역간 실질적 교류와 상호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지난 20년간 경제 및 교역 면에서 세계 여타 국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고, 양국의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분야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려는 서로의 전략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아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새로운 지방정부간 협력모델 개발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양국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업적성, 대외홍보성 지방간 교류협력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두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중 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 지방정부간의 임시적, 단발적, 기능적인 경제협력을 이제는 좀 더

차원 높은 단계의 중앙정부간 제도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운용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부터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중 FTA는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성장 추동효과와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간의 실질적 교류증진과 상호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민간외교대사로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중수교 20년간 경제적으로는 경이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방면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관계 발전은 그다지 원만한 관계는 아니라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11월이면 확정이 되고 한국 역시 12월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렇게 양국 지도자가 동시에 바뀌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서로 win-win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저의 역사적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난날 민간 사자(民間使者)로서의 역할에서 한층 차원 높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사장님께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언급 바랍니다.

저는 먼저 내 조국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중국을 연구하기 위해 50여 년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식견을 통해 한국이 대중국 관계를 바람직하고 상생적으로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최고의 협력자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동반 성장하는 和而不同으로서 상생공동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내가 능력이 존재하는 날까지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으로 위해 혼신을 다 할 것입니다. **CM**

취재_엄현숙(seaneom@hanmail.net)

【独家】韩专家解析韩国新一任朴槿惠政府大政方针(图)

2012年12月20日00:13 来源: 人民网-国际频道 手机看新闻

2012年12月19日,在韩国首尔新国家党党部,朴槿惠向支持者招手示意感谢。
图片:新华社发

人民网北京12月19日电 (记者 刘融、孙伟东)据韩联社19日报道,韩国第18届总统选举开票完成70%,新国家党总统候选人朴槿惠以51.6%的得票率确认赢得选举。人民网记者第一时间专访韩国社团法人、中国政经文化研究院理事长、国际政治学博士李映周。

经济方面 朴政府或将推进大中小企业共同发展

记者:韩国新国家党朴槿惠当选新一届韩国总统,也是东北亚第一位女性总统。您认为朴槿惠政府的政策,和同样是新国家党的前任李明博政府在经济方面的政策方针上有哪些相同点和不同点?

李映周:简单说来,朴槿惠当选韩国新一任总统,经济方面将推行民主化。对大企业政策会跟李明博政府有所不同。朴槿惠政府一方面控制大企业政策,一方面鼓励大企业跟中小企业合作,推进大中小企业共同发展,同时包括韩国普通民众经济的改善。而李明博政府则是一贯推行重点发展大企业。

外交方面 朴政府势必提升同中方合作

记者:那么外交方面,朴槿惠政府将推行何种政策呢?

李映周:外交方面,首先,我确信韩美关系仍保持一贯的同盟关系,并将更进一步发展。

韩中关系方面,之前的李明博政府跟中方关系一直并不太理想,朴槿惠政府将致力于提升韩中关系战略合作伙伴关系。我理解的“提升”是虽然还不能达到同盟关系,但将比现阶段更进一步发展,提升至接近于等同于同盟关系的一个状态。

韩日关系方面,不论是历史性的问题还是领土纷争问题都是一个严肃且严重的话题,不管是何人当选韩国总统,历史问题和领土纷争都是不容易解决的。但从外交角度来说,从国家的利益角度出发,韩国政府也会希望进一步发展同日本的关系。从目前来看,韩国政府想改善同日本的关系不是一件容易的事,仍需要美国从中协调。

朴政府将首要改善韩国民生

记者:您认为朴槿惠担当新一任总统之后,她首要的任务是什么?

李映周:最主要的经济问题是经济问题。目前,韩国经济处于恶化的一个状态。我认为朴槿惠上台之后,首先要解决经济问题,改善韩国民众的生活。但实际上,从大环境看,全球经济普遍恶化,朴槿惠要想改善经济问题也不是一件容易的事。但是,无论如何从政策上将着重于改善民生,提高韩国民众的生活水平。

另外,我认为,要想提高韩国经济发展,必须同中国建立合作关系。现阶段,中国是世界上第二经济大国,韩中在进出口方面也是关系最密切的。韩国自然资源匮乏,想要发展经济必须靠出口,而出口最多的国家就是中国。所以,朴槿惠政府一定是要发展跟中国进一步的合作。

朴政府将开展对话方式以改善南北关系

记者:此前,李明博政府在朝鲜“闪电”发射火箭一事上表现不佳,遭到韩国民众质疑。您认为同样作为新国家党的朴槿惠将会实行怎样的对北政策?

李映周:可以这样说,朴槿惠政府的对北政策跟李明博政府有所不同。李明博政府的对北政策一贯十分强硬,先提出一些条件,只有朝鲜方面满足李明博政府开出的条件才会与之来往、协调以及谈判。而朴槿惠政府虽然也是持强硬态度,但会先同朝方开展对话谈判。

"독점" 한국 전문가 한국 신임 박근혜정부 국정방침 해설

2012년 12월 20일 소스: 인민일보 온라인 국제채널 휴대전화

2012년 12월 19일, 한국 서울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당선자, 지지자들이 손짓하고 있다
인민일보 인터넷 베이징, 12월 19일 (기자 리우룽, 손웨이둥) 연합 19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70% 완성된 시점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6%의 득표로 선거에 승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민일보 인터넷뉴스에서는 즉시 한국 중국정책문화연구원, 국제정치학 박사 이영주 이사장과 특별 인터뷰하였다.

경제방면 박근혜정부 중소기업과의 공동발전을 추진

기자: 한국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첫 번째 여성대통령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같은 새누리당 이명박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방면의 정책과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영주: 간단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경제방면의 정책은 향후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 대기업정책에 있어서도 이명박정부의 정책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확장정책에 규제를 가하고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독려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서민 경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게 대기업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외교방면: 박근혜정부 중국 측과의 협력 업그레이드 해

기자: 외교 방면에 대하여 박근혜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영주: 외교, 첫째로 한미관계는 여전히 일관되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진일보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중 관계방면은 이전에 이명박정부의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았습다. 한중관계 개선에 대하여 박근혜정부는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는 중국과의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 단계에 비해서 동맹적 관계에 상당하는 정도로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 역사적 문제는 영토 분쟁의 문제는 모두 무거운 주제입니다. 누가 한국 대통령 선출에 관계 없이 역사문제와 영토분쟁 문제는 역시 용이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이익의 관점과 외교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또한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기대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전히 미국이 중간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선과제는 한국 서민의 민생개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우선적으로 기본 임무는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이영주: 가장 중요 한 핵심 문제는 경제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경제 문제, 한국 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어 있는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계개선에 집중 하는 정책에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 설정 해야 한국 경제 개발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입 및 수출 측면에서 가장 밀접 하게 연결 되어 있습니다. 천연 자원의 부족한 한국의 경제개발은 수출에 많이 의존 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수출 의존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중국과 진일보의 협력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실시

기자: 기존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광명성3호" 로켓 발사에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한국인들도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어떠한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영주: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먼저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한 이명박정부는 대북 협조나 대화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비록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한다 하여도 우선 대북 대화를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读“蓝厅热词” 把脉中国外交

中国外交部近日举办了以“新形势下的中国外交”为主题的第八届“蓝厅论坛”。本报撷取了其中关于中国对外政策方针、国家利益、周边国家关系、地区安全、中美关系、中日关系、朝鲜半岛局势、叙利亚问题等方面的表述，并采访、集纳了一些中外专家的相关观点，以期帮助读者了解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后，特别是走进2013年之际的中国外交政策走向。

过去一年，中国在外交领域处理包括中美关系、中日关系、中韩关系等方面问题时，都表现出一种大国风范，在国际上赢得广泛尊重。特别对钓鱼岛问题和南海问题，中国政府明确表示了自身立场，坚决维护国家利益。就韩中关系而言，两国政府需尽量消除在文化、历史等方面的误解，寻求在经济、能源、政治、军事等各方面的合作。希望未来韩中两国相互合作，加强在朝鲜半岛问题上的沟通协调，为维护和促进东北亚地区的和平与发展而共同努力。

— 韩国中国政经文化研究院理事长、国际政治学博士李映周

“난팅포럼” 새로운 정세 하에 중국외교

중국외교부는 최근 ‘새로운 정세 하에 중국외교’를 주제로 제8차 ‘난팅포럼’을 개최하였다. 본보는 그 중 중국 대외정책방침, 국가이익, 주변국가관계, 지역 안보, 중·미관계, 중·일관계, 한반도정세, 시리아문제 등을 취재하고 이 문제들의 설명하고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회 후, 특히 2013을 즈음하여 중국외교정책 방향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몇 분의 외국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관점을 모아 게재한다.

지난 1년 중국은 외교영역에 있어 중·미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 등 여러 문제발생 시, 여러모로 대극적 풍모를 나타내며 국제적으로 폭넓은 존중을 받고 있다. 특히 다오이다오(钓鱼岛) 문제와 남해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단호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한·중관계에 대하여 말하자면, 양국 정부는 문화, 역사 방면에 있어 오해를 되도록 해소 해야하고 경제, 에너지원, 정치, 군사 등 다방면의 협력이 절실하다. 향후 한·중 양국이 상호 협력할 것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

-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이사장, 국제정치학박사 이영주



사진자료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예방
2003.06.20 (人民大會堂)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예방
2005.11.16 (신라호텔 영빈관)



장쩌민 (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예방
2001.05.28 (中南海)



원자바오 (溫家寶) 중국 총리 예방
2007.04.10 (신라호텔 영빈관)